

청소년 연합 수련회, 타주·다민족까지 영향력 확대

제6회 청소년 연합수련회
 “새롭게 하는 성령의 불”
 타주, 다민족, 비신자도 참가

제6회 청소년 연합수련회가 “새롭게 하는 성령의 불”(행 3:19)이라는 주제로 6월 17일(월)부터 19일(수)까지 나성순복음국제음식기도원(원장 진유철 목사)에서 개최되었다.

남가주 지역 한인교회를 섬기고자, 자체적으로 여름 청소년 수련회를 열기 힘든 교회를 위해, 나성순복음국제음식기도원에서 주최한 이번 수련회는 6회를 맞이하면서 타주, 다민족, 비신자에게까지 확장되었기에 큰 의미가 있었다. 감사로 이번 집회를 이끈 한사무

엘 목사(말랑영산신학대학원 담당, ICA수라바야 교회 부목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며, 성령의 능력을 받아 주변을 변화시킬 길 당부했다. 수련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고, 기도 시간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 받았을 수 있었으며, 여러 지역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 교제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전했다.

이번 수련회에는 LA, OC, 벤츄라 카운티, 버지니아 주와 뉴욕 주의 4개 교단, 9개 교회, 총 청소년 72명, 자원봉사자 100명이 참가했고, 한인 외에도 타민족 청소년 3명 및 비신자 혹은 현재 교회를 다니지



나성순복음국제음식기도원 주최 제6회 청소년 연합수련회가 6월 17(월)~19(수)까지 진행됐다. @lafgc.com

않는 청소년 4명이 참석했다. 20개 교회, 97명, 3회(2018년) 19개 교회, 114명, 4회(2019년) 19개 교회, 115명, 5회(2023년) 8개 교회, 79명이 참가했으며 나성순복음교회가 모든 비용을 후원해 전액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 이윤준 기자

조지아센추럴대학교, 설교학 석사 및 박사 연구 장학생 모집

조지아센추럴대학교(Georgia Central University, 총장 김창환 박사) 설교연구센터에서 설교학 석사 및 박사 연구 장학생을 모집한다.

설교연구센터는 릴리재단(Lily Foundation)으로부터 5년간 125만불의 연구비를 지원받음으로 설교 연구자들을 전액 장학금으로 선발하게 된다.

연구센터의 연구원들은 포스트모던 상황의 도전을 응전하고 극복하는 적절한 복음전달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Narrative, Dialogue, and Technology Preaching 중심으로, 포스트 팬데믹 설교에 실제적인 소통(Communication) 방법을 찾아가며, 전통적인 설교를 넘어 창조적인 설교로 나아가며 마지막으로 인종, 문화, 언어, 세대 간 갈등 등 교회의 당면한 이슈들을 다루

는 설교를 연구할 방침이다. 모집대상은 신학 석사(M.Div Preaching Concentration): 목사 후보생 및 사역자 그리고 목회학 박사(D.Min Preaching Concentration): 목사 및 전도사이며 입학지원서, CV 혹은 이력서, 연구 계획서(2-3페이지)를 제출해야 한다. 각 분야 10명씩 선별해 심사한다. 모집기간은 2024년 6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시 모집하며, 가을학기 개강은 8월 19일(월)이다. 이 대학은 미국 연방 교육부(USDE)와 미 고등교육국(CHEA)에서 인준한 북미주 신학교 협회(ATS)와 기독교 대학 협회(ABHE)회원이다. 김앤더슨기자의 문의: 678-935-0334 이메일: admissions@gcunive.edu 주소: 6789 Peachtree Industrial Blvd, Atlanta, GA 30360

엑스플로(EXPLO) 74 50주년 기념대회 개막

한국CCC(대표 박성민)가 EX-PLLO'74 50주년 기념대회를 지난 24일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에서 개막했다. 이번 대회는 'We, the Sent!'(요 17:18)라는 주제로 열렸다.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4박 5일간 열리는 이번 대회는 해외 참가자 600여 명을 포함해 총 9,800여 명이 참가했다. 대회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저녁집회, 선택특강, 선교학교, 전국 유학생 모임, 전도 전략 교육, 새진구반, 선교·비전·통일박람회 등이 준비돼 '연합·전도·기도·선교'라는 네 가지 핵심 가치를 공유하도록 했다.

'JESUS, THE SENT!'라는 주제로 열린 첫날 저녁집회는 참가자들의 한 목소리로 외친 카운트다운으로 시작됐다. 이어 단상에 오른 류지호(경희대 4년), 김지원(숭실대 4년) 전국 총·부총 순장(CCC 전국 학생 리더)은 “4박 5일 동안 우리



EXPLO'74 50주년 기념대회가 6월 24일(월)부터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에서 진행되고 있다. ©CCC 제공

를 뜨겁게 만나주시고 변화시킬 하나님을 기대한다”며 참가자들에게 환영 인사를 건넸다. 이어서 전국 39개 지구와 600여 명의 해외 참가자들을 대표해 기수단이 입장하며 대회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기수단 입장 후에는 각 지구의 퍼레이드가 이어졌다. 이어 박성민 목사(한국CCC 대표)

의 개회 선언으로 참석자들은 경배와 찬양을 이어갔다. 이후 간증자로 나선 유은재 순장(한국해양대 4년)은 “수련회에서 주님이 정말 계신다면 주님을 만나 마음으로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고 간증했다. 노형구 기자 → 3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시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링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라스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연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4년 대박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이상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전기료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소그룹 평신도 리더십부터 세워야 합니다

소그룹 리더 세미나

강의 주제 1
건강한 교회와 소그룹

강의 주제 2
건강한 소그룹의 목회적 적용

강의 주제 3
소그룹의 소통

강의1 (오전10:00 ~11:15) **건강한 교회와 소그룹** - 로이스 조 원장
강의2 (오전11:30~12:45) **건강한 교회의 목회적 적용** - 로이스 조 원장
점심식사 (오후12:45~1:45) **식사 및 교제**
강의3 (오후1:45~3:00) **소그룹의 소통** - 씨니 김 목사

일 시: 2024년 7월 8일(월) 오전 10시
등록마감: 2024년 6월 30일(일)까지(선착순 30명)
등록비: 20불
장 소: 세계선교교회(담임 김창섭 목사)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주 최: 기독일보
문 의: 기독일보 (213)434-1170
 Email : chdailya@gmail.com

등록신청

강사 : 로이스 조 원장
 Fuller Seminary MA
 미연합감리교회 소그룹 아카데미 훈련원장 역임
 CRC 커피브레이크 북미주 부대표역임
 Small Group & Leadership Academy 대표

강사 : 씨니 김 목사
 풀러신학교 선교학 박사
 LA씨티교회 담임목사
 미주장로회 신학대학 실천신학 교수
 아시아선교연구소 연구원

사랑의 캠프 '민음의 뿌리, 밀알의 뿌리를 찾다'

남가주, 북가주, 밴쿠버, 샌디에고, 한국, 멕시코에서 350여명 참가

'2024년 밀알 서부지단 연합 사랑의캠프'가 지난 6월 20일(목)부터 22일(토)까지 2박 3일 동안 CSU Long Beach 캠퍼스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올해 사랑의 캠프는 남가주와 북가주, 캐나다 밴쿠버밀알 가족들과 더불어 ANC온누리교회 GM과 청년 트랙팀, 샌디에고, 한국, 멕시코 등에서 약 350여 명의 장애인 참가자와 자원봉사자, 스태프 등이 참석해 CSU Long Beach 캠퍼스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눴다.

특히 이번 캠프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골로새서 2:6-7 말씀을 중심으로 "Roots(뿌리)"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사랑의캠프에 참여하는 장애인 참가자와 봉사자들 모두 예수님 안에 더욱 깊이 뿌리 박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해진 주제이다.



'2024년 밀알 서부지단 연합 사랑의캠프'가 6월 20일(목)부터 22일(토)까지 2박 3일 동안 CSU Long Beach 캠퍼스에서 개최되었다. ©milalsca.org/

사랑의캠프 첫날은 CSU Long Beach에 도착해 기숙사 방 배정 후 '김형건' 트랙팀 리더의 인도로 본격적인 캠프 일정을 시작했다.

심상은 목사(남가주밀알 부이사장, 감보리선교교회 담임)가 말씀을 전했고, 모든 참가자들이 세족식과 성찬식에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장애인 참가자의 발을 닦아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고, 성찬식을 통해 장애, 비장애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며 그분이 주시는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동등하게 누리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둘째 날은 참가자들을 성인팀과 아동팀으로 나누어 각종 레크리에이션과 수영, 장기자랑 등이 이어

졌으며 Seal Beach 해변에서 레크레이션 시간을 보냈다.

특히 Gallery Deco, Caricature 그리기를 통해 각자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았고, 저녁에는 신나는 댄스파티를 벌이며 이번 캠프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했다.

또한 멕시코 후아레스 지역의 장애인 가정도 캠프에 참여하여 밀알과 사랑의캠프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 날인 22일에 지난 45년 동안의 밀알선교단 사역을 담은 사진들을 보며 밀알의 발자취를 따라가보는 시간을 가졌고, 사랑의교실 브랜치별 공연 발표 후 세계밀알연합 '이재서' 총재가 인도



'2024년 밀알 서부지단 연합 사랑의캠프' ©milalsca.org/

하는 폐회예배를 끝으로 2024년 사랑의캠프가 모두 막을 내렸다.

남가주 밀알은, "올해도 수많은 이들의 수고와 기도, 후원 덕분에 멋지고 아름다운 사랑캠프가 진행

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참가자와 봉사자들 모두 소중한 추억으로 오래도록 기억에 남길 바란다"고 소감을 나눴다.

이윤준 기자

남가주 장로 성가단이 함께 한 제1회 선교 찬양제



남가주 장로 성가단이 함께하는 제1회 선교음악회가 6월 23일(주일) 오후 6시 나성영락교회에서 개최됐다. ©기독교일보

남가주 장로 성가단이 함께 하는 제1회 선교 찬양제가 6월 23일(주일) 오후 6시에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에서 개최되어 선교에 힘을 북돋았다.

찬양제는 한경환 장로(남가주 장

로 성가단 단장)의 환영사, 정도영 장로의 기도, 박은성 목사의 말씀에 이어 남가주 장로성가단 중창팀(지휘: 장진영, 피아노: 윤경미), 보치엘레스티 어린이 콰이어(Voclesti Children's Choir, 지휘 안주영, 피아노

강윤희, 조아라), 밸리 한인 여성 마스터 코랄(Valley Korean Women's Master Chorale, 지휘 오정근, 피아노 하영화), CTS A. Missin Choir(지휘 김명옥, 피아노 김애영), 오렌지 미션 콰이어(Orange Mission Choir, 지휘 강민석, 피아노 방애린), 나성 영락교회 3부 찬양대(지휘 정현관, 피아노 이경아)가 공연했다.

1992년 12월 14일 교파를 초월해 20여 개 교회의 장로 25명이 모여 창단된 남가주 장로 성가단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전도 사역으로서 선교 및 지역 사회에 기독교 문화 활동에 일익을 담당하며 교회 음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매년 정기 연주회를 비롯해 지금까지 120여 회 이상 선교 찬양 연주회를 개최했고, 매주 월요일 오후 6부터 8시 30분까지 나성영락교회 교육관에서 찬양 연습을 하고 있다.

김민선 기자

6.25 참전용사 기념 행사식

한국전 발발 74주년을 맞아 지난 6월 22일(주일) LA 한인타운 새한교회에서 6.25 참전 용사를 기념하는 행사가 개최됐다. 이 행사에는 6.25 참전용사 외에도 월남전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과 단체 관계자분들이 함께했다.

이 뜻 깊은 행사에 센터메디컬 그룹도 함께 참여하여 행사 의

미를 더욱더 깊게 새겼다.

센터메디컬그룹은 풍성한 선물도 손에 가득 선사했다. 시니어들이 좋아하는 물품부터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까지 가득 가방에 담아 쥐어주며 '역시 한인 시니어를 케어하는 유일한 메디컬그룹'이라는 칭찬을 받았다.

김민선 기자



한국전 발발 74주년을 맞아 6월 22일(주일) LA 새한교회에서 6.25 참전용사를 기념하는 행사가 개최됐다. ©센터메디컬그룹



그레이스미션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재단이사장 **한기홍 박사**
총 장 **최규남 박사**

2024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원서접수 일정

- 원서 접수 마감 : 7월 31일까지
- 개 강 : 8월 26일

입학설명회 <설명회 참석자 입학금 면제>

1차 : 2024.6.17(월) 5:00pm (미국 서부시간)
2차 : 2024.7.15(월) 5:00pm (미국 서부시간)
ZOOM ID : 954 257 1647 PW : 2020

입학 절차

1. 원서접수

www.gm.edu에서 Apply메뉴 클릭

2. 서류 제출

온라인으로 필요서류 제출

3. 인터뷰

온라인 인터뷰 진행

교육인가기관






입학 특전



유학생 I-20 발행



선교사 및 목회자 장학금, Early Bird 장학금



연방정부 장학금 및 학비용자 (FSA)



통신(Online)수업으로 학위 취득 가능



eBook Library Service 제공

꿈과 비전이 현실이 되는 곳!

실린다

나의 미래



학사
Bachelor Of Arts

- 신학 (BATH)
- 기독교상담학 (BACC)

석사
Master

- 목회학 (M.Div.)
- 기독교 교육학 (MACE)
- 선교학 (MAICS)
- 기독교 상담학 (MACC)

박사
Doctor

- 선교학 (DMiss)
- 교차문화학철학 (PhD ICS)
- 교육학철학 (PhD ES)
- 상담심리학철학 (PhD CS)

[Apply 바로가기] [입학설명회 ZOOM]



그레이스미션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www.gm.edu

admissions@gm.edu

(714) 525-0088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OC교계, 대각성 새벽기도회와 목회자 세미나 연다

7월 22일~8월 14일까지 차세대 목회자 21인 초청 갈보리선교교회서 21일간 9월 1일 사모블레싱 나이트

갈보리선교교회(심상은 목사)에서 차세대 목회자 21인 초청 OC영적 대각성 새벽기도회 차세대 목회자 세미나가 열린다.

OC교협, OC목사회, OC여성목사회, OC장로협, OC기독교전도연합회가 공동 주관으로 열리며, 대각성 새벽기도회는 오는 7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21일간 주중 오전 5시 30분에 갈보리선교교회에서 진행된다. 토요일은 오전 6시에 시작된다.

주관측은 “이번 기도회는 교계 공식적인 자리에서 소개될 기회가 많지 않았던 3050 차세대 목회자를 폭넓게 찾아 다음 세대의 리더로 한걸음 나설 기회를 마련하는



차세대 목회자 21인 초청 OC영적 대각성 새벽기도회와 차세대 목회자 세미나가 7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21일간 주중 오전 5시 30분에 갈보리선교교회에서 진행된다. 이 행사를 위해 24일 목회자 및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가진 후 사진촬영을 했다. © OC교협

동시에 기존 교회의 목회자들이 차세대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섬

김과 협력, 영적 부흥과 존중의 큰 그림을 그려가는 귀한 초석이 되고

자 마련된다”면서 “OC와 인근 지역에서 수고하는 3050세대 목회자

21인을 추천받고 있다.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3050 차세대 목회자 세미나는 오는 8월 15일(목) 오전 10시부터 은혜한인교회 2층 친교실에서 열린다.

한기홍 목사가 대회장으로 해서 3050 목회자 및 부교역자 선착순 120여 명을 초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OC교계에서 매년 열고 있는 ‘사모블레싱 나이트’가 9월 1일(일) 오후 5시에 은혜한인교회 2층 친교실에서 열린다.

주최측 관계자는 “30대에서 60대까지의 현역 사모 200분을 초청해 마련되는 축복과 위로, 회복과 도전의 시간에 각 교회 목회자와 부교역자의 사모들을 초청한다”면서 “눈물과 감동의 시간이 풍성한 식사와 푸짐한 선물과 함께 준비될 예정이다”고 했다.

토마스 맹 기자 문의: 714-722-4805

더위 썸이야... 첫 날 300 명 돌파

6월 28일(금) 오전 10시~오후 2시까지 접수 올해 세번째 학기(7~9월) 45개 과목 개설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이사장 신영신, 이하 시니어센터)는 2024학년도 세 번째(7~9월) 학기 프로그램 접수를 6월 26일(수) 시작했다. 접수 첫 날에만 307명이 신청했으며, 접수는 6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마감한다.

이번 학기에는 스마트폰 중급, 기초영어, 칠교놀이 등 3개 과목이 신설된다. 스마트폰 중급반은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 아이디/비번, 지도찾기, 뱅킹앱 사용방법을 지도할 예정이고, 기초영어는 회화중심으로 기초부터 학습을 진행하며, 칠교놀이는 치매예방을 위해 특별히 마

련한 과목이다.

매월 첫 번째 화요일, 타운 내 미용실 대표들이 재능기부 참여로 노인들 머리를 무료로 깎아 드리는 헤어커트,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회장 이태한) 주관으로 매월 첫 번째 목요일에 펼쳐는 법률상담, 매주 수요일 소셜워커 1대1 상담, 매주 화-목요일 변호사 1대1 무료 상담, 발달장애인을 위한 나눔교실, 청소년을 위한 STEM교실은 이번 학기에도 계속된다.

어르신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접수 전 9:30am 부터 번호표를 배포한다고 미리 알렸으나, 시니어센

터 앞에는 2:00am부터 신청자가 몰려들기 시작, 새벽 6시엔 이미 100명을 넘겨 모두를 놀라게 했다.

피아노, AI, 댄스, 스마트폰교실, 스트레칭, 칠교놀이, 냅킨아트, 근력운동, 스케치클래스는 오전에 이미 마감했다.

이번 학기 번호표 1번은 손혜자(72세, LA거주) 씨이다. 새벽 2시에 도착, 스마트폰중급, 영어소셜, 스트레칭, 스케치클래스, 근력운동을 신청한 손 씨는 “시니어센터는 진정 우리들의 사랑방”이라고 말하며 기뻐했다.

장소 : 시니어센터 1층(965 S. Normandie Ave., L.A. CA 90006)

문의 : (213) 387-7733

참가: 18세 이상 주민 누구나 선착순 신청 주디 한 기자



은혜한인교회 2024 VBS 장면. ©은혜한인교회

남가주, 여름 성경학교 시즌!

여름성경학교 시즌이 찾아왔다. VBS는 방학의 시작과 함께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은혜한인교회는 지난 화요일(6/18)부터 토요일(6/22)까지 “SCUBA”라는 주제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법을 가르쳤다. ANC온누리교회는 같은 주제로 18일부터 20일까지 VBS를 진행했고, LA사랑의교회는 “누가 챔피언이 될 것인가?”(거룩이 힘이다)라는 주제로 창세기 12장부터 열왕기상 10장을 공부한다. 프리스쿨부터 1학년까지는 7월 1일(월)부터 3일(수)까지, 사랑의교회 은혜채플에서, 2학년부터 8학년까지는 페퍼다인대학교 옐킨스 강당에서 진행한다.

나성영락교회는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The Great Jungle Journey”를 주제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조, 타락, 재난, 혼돈, 그리스도, 십자가, 성취에 대해 배웠다. 한길교회는 6월 20일부터 22일(목~토)까지 영유아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유년부 “Food Truck Party”라는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다.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는 “Breaker Rock Beach-이 세상을 본 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로마서 12:12)는 주제로 6월 25일부터 28일(화~금)까지, 유치부, 유년부까지 VBS를 진행했다. 웨스트힐 장로교회는 6월 19일(수)부터 23일(주일)까지 “Arise, shine: for thy light is come”이란 주제로 VBS를 진행했다. 주디 한 기자

→ 1면 기사(엑스포로 74...개막)에 이어서

이어 울산지구 총순장 박재영 순장(울산과학대 2년)의 성경 봉독 이후 박성민 목사가 단상에 올랐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창 28:10~22)으로 메시지를 전한 박성민 목사는 “형 에서를 피해 돌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에게 꿈을 통해 하나님의 사다리리를 보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누구나 미래가 불안하고, 관계가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을 겪을 때가 있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맞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계속해서 박성민 목사는 청년

들에게 단상 앞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할 것을 초청했다. 참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을 보냈다. 참가자들은 이후 서로의 손을 잡고 꼭 껴안으며 축복했다.

영접 초청 기도를 마친 후에는 수원지구 TWC팀의 인도에 따라 환영과 축복의 시간을 보냈다. CCC 신입생을 격려하며 여름수련회 첫 날이 지났다.

핫한여름쿨한세일

NEW 2024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0%

APR Financing

60개월까지 할부 가능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Ioniq 5 ONLY)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Up to 48Months

NEW 2024 HYUNDAI Tucson Hybrid SEL Convenience AWD

NEW 2024 HYUNDAI Kona SEL

NEW 2024 HYUNDAI Santa Fe Limited

Lease Special

NEW 2024 HYUNDAI Ioniq 5 SE RWD

NEW 2024 HYUNDAI Ioniq 6 SE RWD

\$10,000 Lease Cash Available

STEVE CHANG 213.235.6825 | PAUL KIM 714.331.3855 | MIKE LEE 714.914.8414 | JUSTIN KIL 213.999.3935 | CHARLEY JEONG 213.276.8959 | JAMES PARK 213.839.3332 |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888-644-7114 |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한인침례교총회 제43차 정기총회, 인디애나폴리스서 성료

총회장 김영하, 제1부총회장 이태경 목사 선출
내년 총회는 달라스 텍사스

올해로 43회를 맞이한 미남침례교한인교회총회(CKSBCA)의 정기총회가 인디애나폴리스의 Marriott East 호텔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지난 6월 10일(월)부터 13일(목)까지, 진행된 총회에 침례교 지도자들과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결속을 다지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참석인원은 대의원 등록 475명, 자녀 포함 전체 683명이 등록했고 봉사자를 포함하면 7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였다.



올해로 43회를 맞이한 미남침례교한인교회총회(CKSBCA)의 정기총회가 인디애나폴리스 매리어트 호텔에서 6월 10일(월)부터 13일(목)까지 개최됐다. ©기독교일보

■ 첫째 날: 개회와 환영, 축하, 저녁 부흥회

이번 정기총회는 호텔에서 개최돼 대의원들의 편의성이 극대화됐다. 미국 교회를 빌려서 개최할 경우 비용이 크게 절감되지만, 숙소와 교회를 오고 가는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이 힘들고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때 숙소에서 잠시 쉬 수 있는 장점 등이 있어 이번 총회는 편의성이 높은 총회였다. 총회 첫날은 제1부총회장 김영하 목사(살롬선교침례, sCA)의 사회로 시작됐다.

총회장 조낙현 목사의 환영사 후 영상으로 미국남침례회(SBC)의 Bart Barber 총회장과 한국의 침신대 총장 피영민 목사의 축사가 전해졌다. 개회와 환영축하의 시간은 특주(김성민, 양주영, 전예림)와 함께 저녁 부흥회로 이어졌다. 이필순 목사(새생명, MI)의 성경 봉독 후 SBC 증경총회장 J. D. Greear 목사(The Summit Church)가 “배가 하는 무브먼트의 4가지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박요셉 목사(코너스톤커뮤니티, nCA)이 통역했다.

■ 둘째 날: 선교와 교육, SBC총회, 저녁 부흥회

둘째 날 새벽부흥회는 한필상 목사(뉴욕안디옥침례, NY)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박병만 목사(새소망침례, MI)의 은혜로운 찬양 인도 후 신희광 목사(코도바한인침례, TN)의 기도가 있었다.

박성근 목사가 “그럼에도 새 시대를 열자”(막 1:9~11)라는 메시지로 큰 은혜를 주었다. 박진하 목사(퀸즈침례, NY)의 축도로 새벽부흥회를 마쳤다. 이어진 집회(사회: 총무 강승수 목사)에서는 오완기 목사가 성경봉독한 뒤 IMB Asia-Pacific 대표 Greg Mann이 “왜 우리는 보증을 받았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총무 강승수 목사가 통역했다.

한국 침례교 기관과 SBC 기관에서의 사역 보고와 선택 강의를 있었으며, 증경총회장 최영이 목사(도버한인침례, DE)의 축도로 집회를 마쳤다.

오전 집회 후에는 세미나 시간으로 ▲목회트렌드 2024(박준순 목사) ▲지역 교회 리마운드의 두 가지 키워드(현지용 목사) ▲고독나무에 꽃이 핀다(고령화 교회의 부흥과 실제, 유훈 목사) ▲장년주일 학교에 생명을 불어 넣어라(Ken Braddy 목사, 통역 이상현 목사) ▲목회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교회 음향 상식(이재호 실장) ▲한인들에게 찾아온 중동선교의 기회들(JD Lee, 김경찬, 배병균 선교사)의 선택 강의를 있었다. 점심식사 후 참석자들은 준비된 대형 버스를 탑승해 인디애나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SBC 연차총회를 방문해 등록 후 참여했다. 관심을 모았던 여성 사역자를 금지하는 헌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이외에도 ▲부모의 권리: 부모의 권리와 자녀 양육에 대한 결

의안 ▲이스라엘에 대한 정의와 평화: 이스라엘과 관련된 국제적 문제에 대해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결의안 등이 상정돼 논의됐다.

저녁 식사 후에 진행된 선교 축제에서는 해외선교부장 정승룡 목사(리치몬드침례, nCA)가 사회를 맡았으며, 정승룡 목사는 해외선교부 총무 김진규 목사(열방, OR)는 해외선교부의 사역을 소개했다. 은퇴한 선교사들(파테말라 박준배-박우연, 베네수엘라 정경석-정금자)에게 감사패가 전달되었고, 멕시코에서 활동 중인 이천우 선교사의 간증이 이어졌다.

계속해서 국내선교부장 이태경 목사(엘파소중앙침례, TX)가 사회를 맡아 국내선교부의 활동을 소개하고, 밴쿠버 팔로우교회의 김효선 목사가 간증을 나누었다. 개척교회들을 위한 중보기도와 김종규 목사(달리제일한인침례, NC)의 헌금기도가 있었다.

이어진 저녁 부흥회는 박규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형제분과위원회(형제회) 장학금 수료식이 있었다. 형제회는 올해도 총회를 개최하는 지방회의 성도 자녀를 선정해 장학금을 수여했는데, 회장 김동성 목사가 2명의 학생에게 수여했다. 박성근 목사가 이번 총회의 주제인 “리바운드(Re-bound)”(사 60:19~2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코로나 이후에 어려워진 목회자와 교회를 격려했다.

■ 셋째 날: 마무리 은혜, 총회 회무와 피날레 청소년의 밤

마지막 날 새벽부흥회는 오전국 목사(아리조나새빛침례, AZ)의 사회로 진행됐다. 박병만 목사의 인도로 김광수 목사(털사한인침례, OK)의 기도 후, 증경총회장 김경도 목사(플라워마운드, TX)가 “침이 있는 목회”(마 11:28~30)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증경총회장 반기열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오전 집회에서는 총회장 조낙현 목사가 빌립보서 1장 15~18절을 본문으로 “목회가 기쁨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기총회 회무는 신속하게 진행돼 오후에 휴식이 주어졌다. 각 기관의 보고 후 상정안이 다뤄져 ▲제43차 총회 예산안: \$2,199,906.73 ▲신임 실행위원 인준: 1광역-아리조나-네바다지방회 이병걸 목사(라스베가스제일침례, NV), 2광역-남가주지방회 서종학 목사(파사데나침례, sCA), 3광역-캔사스지방회 방용택 목사(캔사스중앙침례, KS), 4광역-중동북부지방회 이필순 목사(새생명, MI), 5광역-알라바마지방회 김한섭 목사(꿈이있는, AL) ▲선거관리위원회 인준: 선거위원장-황인목 목사 / 2년차: 김한섭 목사, 양현승 목사, 황인목 목사 / 1년차: 최국현 목사, 이철 목사, 이필순 목사 ▲법정이사회 인준 ▲법정이사회 내규 상정 ▲규약 수정 특별위원회 상정 ▲건축헌금 이체 상정 ▲부서별 신임 이사진 인준

▲제44차 정기총회 장소 상정: 내년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 정기총회 장소는 SBC와 동일한 장소인 Dallas(TX), 텍사스 북부지방회에서 호스트 할 것을 상정, 날짜는 2025년 6월 9일(월)~12일(목)

곧바로 신임원 선출에 들어갔다. 선거관리위원장 김은복 목사(키스톤한인침례, FL)의 경과보고와 후보 추천으로 진행된 임원 선출의 시간에는 먼저 총회장 후보 김영하 목사가 단독 후보로 소견 발표의 시간을 가진 뒤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박수를 받아 선출됐으며, 제1부총회장 후보 이태경 목사 역시 소견 발표 후 만장일치로 박수를 받아 선출됐다. 제2부총회장(준비위원장)은 텍사스 북부지방회의 추천에 따라 김형민 목사를 박수로 추대했다. 이어진 총무 강승수 목사의 재신임을 묻는 시간에도 소견 발표 후 동의와 재정을 받아 표결 없이 만장일치의 큰 박수로 연임을 결정했다. 총무 강승수 목사는 이로써 세 번째 총무의 4년 임기를 확정지었다.

감사는 추천을 받아 김대원 목사(베다니침례, UT)가 선출됐고, 회계에 유영근 목사(주님의기쁨, TX)가 선임됐으며 서기 오전국 목사(아리조나새빛침례, AZ)가 연임으로 선임됐다. 신규임원교체가 이루어진 뒤 신임총회장 김영하 목사는 “끝어야 할 관습은 과감하게 끊고, 어떤 경우 새로운 시도를 할 것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와 함께 다짐을 밝혔다.

계속해서 총회장 김영하 목사가 상임위원을 발표했다. 상임위원으로는 ▲국내선교부: 송경원 목사 ▲해외선교부: 정승룡 목사 ▲교육부: 정영길 목사 ▲목회부: 박규석 목사 ▲영어목회부: 이진수 목사 ▲형제분과위원회: 김태욱 목사 ▲여성교회분과위원회: 전정민 사모 ▲신학교분과위원회: 김동성 목사가 섬기게 됐다. 신임원과 상임위원 발표가 끝난 뒤에는 동의 재정을 받아 폐회했다. 모든 회무가 막힘없이 신속하게 진행돼 대의원들은 오후에 휴식시간을 갖는 즐거움을 누리기도 했다.

기사 제공: 미주침례신문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장재호, 박기호,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발행인: 이인규 교문번호사: 정찬웅
 지사: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T.(213) 739 - 0403 / E-mail: chdailya@gmail.com
 주소: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리모|델|링 전문 ADU 전문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실내구조 변경 | 집수리 일체 | 디자인/설계/시공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마루시공팀, Kitchen팀, Bathroom팀, Counter Top팀, 페인팅팀, Carpentry팀, 전기팀, Low Voltage음향팀, Plumbing팀, Window팀, Councrete팀, Stacco팀, Roofing팀, Solar시공팀, 철공게이트팀, 지진대비 보강공사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직영팀으로만 운영합니다.)**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23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방문시 예약해 주세요!

Abundance Design & Construction Lic#854389 K-Urban Builders Inc.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센터메디컬그룹

시니어 전문 케어 메디컬 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센터메디컬그룹 무료 사진관 OPEN!

청춘 사진관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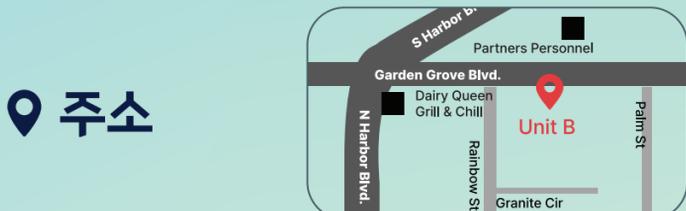
#만 64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독사진 OR 부부사진 택1

센터메디컬그룹 무료 청춘사진관 안내

일시 <7월> 7월 **마감** 26일 <8월> 8월 09일 23일 <9월> 9월 13일 27일



주소

센터메디컬클리닉 가든그로브 지점
12372 Garden Grove Blvd Unit B,
Garden Grove, CA 92843

예약전화 (888) 847-3098 [월~금 오전 8시반~오후 5시반]

시니어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달하는

제 3회

Soprano

구영순 *Recital* 독창회

[일시] 2024년 7월 20일 토요일 오후 5:00

[장소] 미주 평안교회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문의] (213)595-4700

[주최] 센터메디컬그룹

[후원] 아스티바 보험 | 한국일보 | 중앙일보 | 조선일보 | 연합뉴스 |
우리방송 | 수호천사보험 | 나성제일교회 | 이스라엘 선교회

음악으로 힐링하고,

센터메디컬그룹의 특집한 굿데이도 받아보세요.



with



테너 오위영 반주 구소라



“신앙 암흑기 ‘3040 세대’ 주축 교회 되려면...”

지난호(919호) 8면 기사 <한국교회 정말 위기라면, 뭐라도 해봐야죠>에 이어서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살리는 영향력을 주어야 한다고 믿는 임병선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과(B. A.) 및 신학대학원(M. Div.)을 졸업하고, 사우스웨스턴 신학대학교(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석사학위(Th. M.)를, 리버티 신학대학교(Liberty University)에서 교회성장학 박사학위(D. Min.)를 받았다.

-말씀하셨듯 기득권과 전통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득권을 어떻게 돌파하셨는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먼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해요. 은혜를 받으면 수용해 주세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딱딱하지요. 예배를 통해 은혜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설득도 가능하고, 귀가 열립니다. 다른 하나는 결과물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사실 대부분 목회자들을 신뢰해요. 성도님들 앞에서 말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여받은 권한으로 몸부림치면서 열매를 보여줘야죠.

‘여기는 큰 교회니까 할 수 있지’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 교회처럼 하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사실 저희는 이곳에 오기 전부터 몸부림쳤어요. 교회에 빈 장소를 카페로 만들려다, 주변에 카페가 많다는 걸 알고 고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 카페를 열어 지역 상권을 교란시키는 대신, 중고시장에서 자판기 3대를 사서 ‘동네 사랑방’처럼 꾸며줬어요. 비싼 커피 마실 여유가 없거나 그리고 싶지 않은 분들이 와서 잠시 쉴 공간을 만들었는데, 감사하게도 중·고교생들의 아지트가 됐어요. 갈 데도 돈도 없는 아이들이 오면서 접촉점이 생겼고, 그들이 교회에도 나오고 변화가 되기도 했죠. 그러다 이 건물에는 그런 아이들을 위한 댄스 연습실과 유튜브실을 만들어줬어요.

또 청소년들을 위해 교회 내 전 공자들이 실비만 받고 드림이나 보컬, 기타 등을 가르쳐 주면서 어떻게든 다음 세대, 지역사회와의 접촉점을 만들려고 몸부림쳤어요. 고민하면서 이것저것 해보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

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한 고민과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우리끼리 좋고 편하면 끝이라는 마인드로 가지 말자는 것이죠.”

-정말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럼요. 저는 지금도 살얼음을 걷는 느낌이에요. 사실 예전 교회 건물보다 훨씬 큰 규모로 건축을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두 단계는 거쳐서 지금 같은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조언하셨어요. 저희가 한꺼번에 점프를 한 셈이죠. 땅도 처음 계획은 5천여 평이었는데, 1만 2천 평으로 늘었죠.

성도들 편의를 위한 건물이라면 적당히 짓겠지만, 저는 성도들 편의를 위한 건축이라면 차라리 안 짓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이 지역으로 온 이유는 명지대와 용인대가 1km 거리였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짓고 나서 이곳 학생들이 많이 찾아와요. 예배드리러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공부하러 오는 친구들부터 댄스연습실이나 동아리 모임, 유튜브 촬영을 위해 오기도 해요.

그리고 인근에 용인시청이 있습니다. 그래도 시청 앞에 큰 교회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었어요. 용인시 교육과 문화와 영성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 교회라면 의미가 있겠다 해서 한두 단계를 점프한 거죠. 그래서 지금 빛도 많아요. 입당 6개월 만에 코로나도 터졌고요.”

-그럼 이제 빛만 밝으시면 되나요.

“그런데 6개월 안식월 동안,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장로님들께 무모한 선포를 했죠. 지금 장년 성도들 본당으로 쓰는 글로리 체펠을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 주자고요.

청소년과 청년들도 어른처럼 1·2·3부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른들도 자기 스케줄에 맞는 시간에 예배드리는데, 아이들도 학원 가야 하면 먼저 예배드리고, 늦잠 자고 싶으면 오후에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청년들도 직장 끝나고 올 수 있죠.

미국 새들백 교회가 예배 끝나고 나면 지붕이 양쪽으로 열리거든요. 한국에도 그런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림 다음 세대들은 정말 교회의 주인공이 되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어른들 예배 공간은 ‘핫플레이스’가 되겠죠?”

-교회 설계 과정에서 안 믿는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도 공모를 통해 받으셨는데, 채택은 못했지만 다른 교회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나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을까요.

“교회 주차장을 평일에 자전거 연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자전거를 타러 오거나 가르쳐줄 공간으로요. 또 하나는 건축 부지가 언덕이었는데, 언덕 아래로 카타콤처럼 파서 교회 건물을 짓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건물 위는 동산이나 공원처럼 만들고, 아래에 예배당을 짓자는 것이었죠. 생각지도 못한 제안에 충격을 받았습니. 웬만한 교회 설계자보다 뛰어났어요.

채택된 내용은 주일 주중 복합 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이었죠. 저도 생각하고 있던 내용이었는데,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보고 확신을 가졌죠. 모든 공간을 지역 주민과 다음 세대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댄스 연습실부터 풋살장, 방송 스튜디오, 키즈카페 컨셉 등이 하나하나 만들어졌죠.”

-교회가 세상을 선도할 만한 문화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10리 프로젝트’를 하는데, 중요한 건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곳이잖아요. 사실 세상이 몰라줘서 그렇지,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구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좀 더 지혜로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군에서 정훈장교였는데, 군에서 하는 좋은 일들을 홍보하는 게 주 임무였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교회가 너무 취약해요. 파편화돼 있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모든 일을 다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요.



1. 임경선 목사, 2. 용인제일교회 본당, 3. 어린이날 축제 장면. ©용인제일교회

우리나라 방방곡곡 동네마다 다 교회가 있잖아요. 모든 지역 안에 있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이슬람 문화권을 가보면, 항상 회당이 중심이에요. 하다 못해 데이트를 해도 회당 근처에서 해요. 교육도 휴식도 거기서 하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가 지역의 중심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누구나 지나가면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끊임없는 고민이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정익 목사님은 목회 당시를 회고하면서 ‘목회도 설교도 너무 사람을 바라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사람이 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으로, 사람들을 위한 설교가 아니라면, 굳이 설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되겠죠. 요즘 인터넷이 발달돼서 성경공부 콘텐츠도 많고 유튜브로 설교 들으면 되는데, 굳이 교회까지 와서 설교를 들어야 하나요?

설교는 성경 말씀을 쉽게 풀어주고 들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들려줘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의미가 있고, 듣고 나서 변화로 이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렵게 설교해도 그 사람이 변화하면 문제가 없지만, 성도들이 듣긴 말긴 어렵게 설교하면 변화가 일어날까요? 늘 듣던 사람만 듣고 영혼도 못 살리고 변화도 없었죠.

성도들 반응도 살펴야죠. 말씀하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교회가 제대로 변화하고 성도들이 달라지고 있는가 하는 차원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단순히 늘어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살리고 아름다운 문화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는지 끊임없이 반성하고, 그것이 안 되고 있다면 잘못된 거죠.

청년들이 제게 물어요. ‘목사님, 단기 선교 가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답했어요. ‘가보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야. 일단 가봐.’ <실행자>라는 의도가 이것입니다. 또 그랬죠. ‘1년 갔다 와서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 해도, 그렇게 보면 1년이 우리 인생에 헛된 것이 아니다. 비록 잘못된 감정에 이끌려 1년 간 선교했다라도 그것이 인생에서 절대로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찾으려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 일단 실행해 보는 거예요. 아까 이정익 목사님 말씀도, 뭔가 해 보셨으니 나오는 거죠. 제 말씀은 해보지 않으면 그런 답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일단 해보는 거예요. 해 보고 문제가 있을 때, 다시 바꾸면 되잖아요?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대웅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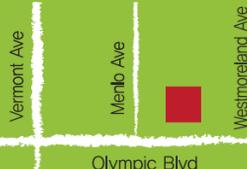
에스더 이원장

올림픽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건강한 몸을 만드는 **기적의 신발!!**

기능성 건강신발
발명 특허 획득
 2024.1.31

신체의 원리를 신발에 담았습니다!
 맨발 그 이상의 신발 -
직접 체험해 보세요!

신발 신은 후 체험 사례 ▶

- 허리가 펴졌어요.
- 다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 발바닥 통증이 사라졌어요.
- 어깨 통증이 사라졌어요.
- 신발만 바꿨는데 무릎, 허리가 덜 아파요.
- 하루종일 서서 일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 엄마가 간신히 걸었는데 이젠 잘 걸어요.
- 스트로크로 지팡이 짚고 왔다가 이 신발 신고 지팡이 놓고 갑니다.



신은 순간 반응하는 **인체의 신비**

신발은 발을 망가 뜨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형된 발은 신체의 근골격계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You Tube **기적신발TV**

Google 검색 www.jgpfootwear.store

무료 체험
 예약 안내
 구입 문의

올림픽 갤러리아 3층
푸드코트 옆

(213)330-6810

3250 W. Olympic Blvd. #304 LA, CA 90006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그 간극 사이에서

졸업식 가득한 6월 ANC온누리교회 주일설교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

졸업식이 있는 6월, ANC온누리교회는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주제의 설교를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주일 6월 23일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네번째 설교에서 김태형 목사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6절을 본문으로, 진정한 자유와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를 대조하며 설교의 문을 열었다.

그는 먼저 이효리와 테일러 스위트 목사의 졸업식 연설과 케빈 드 영 목사의 졸업식 연설을 언급했다.

“이효리는,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살라’며, 독고다이가 되라’고 한다. 테일러 스위트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만드는 것. 모든 것이 당신 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한다. 반면에, Kevin DeYoung 목사님은 2022년도 동부에 있는 크리스천 대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식에서, ‘당신 자신을 믿지 말라. 당신의 꿈도 쫓지 말고, 당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

고, 당신 마음대로 살지 말라’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진짜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제가 내린 결론은 세상의 자유에 대한 관점은 부족하다는 것. 먹고 싶다고 자유롭게 다 먹으면 건강은 어떻게 될까? 화가 난다고 자유롭게 마음 가는 대로 욕하고 주먹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데도 사랑한다고 마음대로 그 사람을 내 소유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자유는 다른 어느 누구의 자유와 분명히 충돌할 것이다.”

이어서 김 목사는 베키 피펫(Becky Pippert)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 지배되고 인정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 아니라 인정에 의해 지배된다. 우리는 우리



졸업식이 있는 6월, ANC온누리교회는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주제의 설교를 이어나가고 있다. ©anconnuri.com

자신을 지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는 표현을 인용하며, 진정한 자유는 개인의 자유에 충실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목적대로 사는 것이라고 했다.

“진정한 자유는 내 감정의 최고의 충실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가능하다. 아담과 이브는 잘못된 자유를

처음부터 추구했다. 모든 자유를 주셨지만 딱 한 가지 제한을 두셨다.”

그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설명한 뒤, 이어서 사도행전 16장에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통해 상황과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자유의 차원이 있음을 이야기했다.

“바울과 실라가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손도 사슬에 묶여 감옥에

감혀 있다. 자유를 침범당했다. 한밤 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온다. 상황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더라도, 실패해도, 상처 가운데도, 고난과 질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자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이다.”

마지막으로 자유를 정의내리며 설교를 마쳤다.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다고 자유를 누린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분들이 계신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여기서 멈추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며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며 섬기지만 그러다 가끔씩 자유롭게 없다고 느끼고, 지치게 되고, 오히려 시험에 든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비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될 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주디 한 기자

“모국어 성경의 부재, 영적 영양실조로 이어져”

“100년 전부터 교회가 들어와 있는데, 파바 섬에, 신학교 다닌, 안수 받은 목사님에게 임신한 딸이 있었다. 그 딸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했다. 거기 사람들은 임신한 사람이 배가 아프면, ‘뱀을 임신했구나’라고 믿는다. 그 목사님은 20년 넘게 사역하신 분인데 딸이 아프니까 무당에게 찾아가신다. 그런데 그 무당도 교회를 평생 다닌 사람이다. 열대우림의 약초를 많이 알고 있고, 마을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찬트를 하면, 병이 낫는다고 믿는다. 그 무당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 무당이, ‘약을 줄테니까, 딸에게 약을 먹으면, 딸이 꿈을 꿀 거고, 꿈 속에서 누구를 볼 것이다. 그 꿈에서 본 사람이 주술한 것이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주술을 풀어 달라고 하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처방해 줬다.”

“그로 인해 큰 싸움이 벌어지고 60명 규모의 교회가 박살이 났다. 그 일을 보면서, 이들이 영적으로 아직 혼동하고 있고 토속신앙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들에게 말씀을 올바르게 번역해서 전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영적으



홍성호 선교사(위클리프 선교회 소속)

로 영양실조가 걸린 것이다.”

33년 전, 1991년 동양선교교회에서 부인 박현숙 선교사와 함께 파푸아 뉴기니의 파바 섬(Tabar Island)에 가 원주민 언어로 신약성서를 번역한 홍성호 선교사(위클리프 선교회 소속)는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된 이야기를 시편 139편을 통해 풀어냈다.

지난 6월 7일(금) ANC온누리교회 금요워십 시간, 홍성호 선교사와 박현숙 선교사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파바 섬에서의 선교를 보고하며 선교의 자리로 초청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시는 구절이다. 이 말씀을 통해



박현숙 선교사 ©anconnuri.com

서 저는 하나님 앞에 꼭 붙잡혀 사역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73년도에 제가 병에 걸려 죽을 상황에 처했는데 교회에 가면 나를 거라는 말을 듣고 교회에 나갔다. 말씀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을 모두 죄인이라고 하는 가라는 호기심에 성경을 읽다가 성령이 임했다.”

홍성호 선교사는, “하나님 말씀을 파며 잘못된 것을 찾으려 했던 눈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셨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지적하고 넘어뜨리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했다. 이어서 성경 번역 현황을 나누고 파바 섬 선교를 보고했다.

“성경 말씀이 제대로 전해져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땅에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암흑 속에 사는 자들이 있다. 이 땅에 언어가 6천 여개. 그 중에 3천 개 정도는 신약성경이 번역되었고, 2천 개 언어는 번역이 되지 않았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Wycliffe Bible Translations)에서 번역을 하고 있다.”

“파푸아 뉴기니는 호주 북쪽, 인도네시아 동쪽, 땅 크기는 남한의 네배이다. 지지난주 큰 산사태가 일어나 한 마을이 없어졌다. 거기에는 800개의 언어가 있고, 저는 거기에 컴퓨터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됐다. 파바라는 외딴 섬에서, 사역하며 20년에 걸쳐 신약성경을 번역했고, 문맹퇴치 사역도 같이 했다. 2010년도에 만다라어 성경 봉헌식을 했다.”

박현숙 선교사는 1998년 마가복음 번역을 마치고, 1년 안식년을 갖고 돌아왔을 때, 파바 섬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도 않고, 변화되지 않았던 때, 시험에 들었지만, ‘성경공

부를 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했다.

“1998년 마가복음을 완성해 놓고 파바 섬을 떠날 때,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졌으니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했다. 1년 안식년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도 읽지 않아서 시험이 들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공부부를 하라고 하셔서 성경공부를 시작했는데 15명이 왔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이 왔다. 하나님께서 정말 미약한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변화되기 시작했다. 선교사가 잔소리해서 변화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들으니 바뀐 것이다. 2009년에는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 행 19장 ‘마술쟁이들이 비싼 책들을 태우는 장면’을 읽은, 파바 섬 사람들이 주술에 쓰던 재료를 교회로 가져와 강대상 앞에 내어 놓았다. 뼈다귀, 해골, 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서 그해 고난 주간에 다 회개하는 부흥회를 하고 섬 전체를 돌며 하나님께 봉헌했다.”

주디 한 기자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5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TH) • MYP(6TH~10TH) • DP(11TH~12TH)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 NCA만의 효율적인 Technology 제공
- 완전한 온라인 캠퍼스 환경 구축
- 커뮤니케이션 툴로 간편하게 정보 이용
- 검증된 LMS와 앱으로 높은 참여, 빠른 피드백
- 교사와 학생들 간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 데이터에 근거한 학생별 맞춤 교육

-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파키스탄 폭도, 기독교인 총살 후 시신에 불 붙여



미디안 경찰서에 불이 붙은 모습. ©CSW 제공

파키스탄 키베르 파크툽와주에서 한 남성이 꾸란 사본을 모독했다는 혐의로 폭도에게 공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펀자브주 출신의 관광객이라고만 확인된 이 피해자는 당초 경찰에 구금됐다가 폭도에 의해 강제로 연행된 후 살해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6월 20일(이하 현지시간) 스와트 밸리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마디안 지역 경찰에 넘겨지면서 시작됐다"며 박해감시단체 세계기독교연대(CSW)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모스크 확성기를 통해 발표된 방송이 폭도를 선동해 경찰서를 습격하게 했다. 이들은 남성을 붙잡은 뒤 경찰서와 경찰차에 불을 지르고 총격을 가한 후 시신에 불을 붙여 살해했다.

스와트 지역 경찰관인 자히둘라 칸(Zahidullah Khan)은 "폭도에 의해 다른 8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소요를 진정시키기 위해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은 "파키스탄 당국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파악하고 체포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경찰이 확인한 영상에는 끔찍한 폭행 장면이 담겼고, 해당 영상이 SNS에 확산되면서 현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 사이에 분노를 촉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파키스탄 아산 이크발 기

획부 장관은 6월 22일 국회에서 종교를 이용해 자경단과 폭도의 정의를 정당화하는 행위를 비난하며 해당 법안을 비판했다. 이크발 장관은 "폭도 정의가 국가를 위기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슬람의 명령에 따라 모든 시신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살해의 일환으로 시신을 불태우는 행위는 비판했다.

이크발 장관은 암살 기도로부터 살아남은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고 파키스탄에서 종교가 무기화된 것을 개탄하면서, 이러한 반복되는 폭력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진지한 성찰과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파키스탄이 무정부 상태에 굴복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CSW는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이 개인 점수를 정하거나 소수자를 표적으로 삼는 데 종종 오용돼 군중의 폭력을 조장한다고 말했다.

CSW의 머빈 토마스(Mervyn Thomas) 회장은 "파키스탄은 법을 스스로 행사하는 이들에 관한 모든 불처벌을 종식하고, 국가가 약속한 종교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는 신성모독법을 폐지하는 등 끔찍한 폭력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우크라이나침례교, 교회 재건 위해 일대일 파트너십 '모색'

우크라이나 북음주의 침례교 지도자가 러시아와의 전쟁 이후, 교회 재건을 위해 미국 침례교회와 일대일 파트너십을 맺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북음주의침례교회전국연합(AIU-Ukrainian Union of Churches of Evangelical Christians-Baptists) 부회장인 이고르 반두라 목사는 뱀티스트프레스(BP)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남침례교회(SBC)가 1991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이후, 우크라이나의 침례교 확장을 지원해온 역사를 회상했다. 그는 러시아 전쟁 이후 이러한 지원이 재차 일어나기를 기대했다.

그는 1991년 당시 "자유가 왔을 때, SBC의 많은 교회들이 팀을 파견했고, 우크라이나의 특정 지역과 주 협회가 파트너십을 맺었다"며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새 교회를 세우고, 여름 성경 캠프를 운영하며, 우리가 시작한 신학교를 지원하고, 성경을 가져와 배포하도록 도왔다"고 했다. 반두라 목사는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침례교 연합이 약 10년 동안 900개 교회에서 2000개 이상으로 성장했으며, 현재 전쟁 중에는 2300개의 교회가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SBC 교회들이 개별적으로 우크라이나 침례교회와 협력하여 전쟁 후 교회들의 재건을 돕기를 희망한다. 그는 우크라이나 모르핀에 거주하며, 이달 11일부터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SBC 연례 총회 전시장에 부스를 열어 이러한 협력을 홍보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침례교 목회자들이 "비슷한 일을 다시 하기 위해 기도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전쟁 중에 교회들

이 우크라이나에 팀을 보낼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는 위험하다"라며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200~300개의 우크라이나 및 미국 교회들이 협력하여 교회 대교회의 협력 관계를 맺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렵고 힘든 전쟁 시기에 우크라이나와 교회를 재건하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실제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두라 목사는 교회들이 지금부터 파트너십을 시작하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확고하게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러시아의 끈질긴 침략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와 침례교 목회자들은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유지하며 종교 자유의 요새로 남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쟁이 시작된 순간, 마치 악이 우리가 한 모든 것을 중단시킨 것 같았다"며 "우리에게 있어 이곳은 조국이자 집이다. 전쟁은 단순히 두 나라 간의 충돌이 아니라 부당하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시작된 전쟁이었고, 우리는 이런 전쟁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정의의 문제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곳에 남아 우리의 존재를 유지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함께 계심을 증거하며, 가장 힘든 시기에 국민들을 섬기고, 그들의 영혼과 육체를 돌보고, 그들과 함께 애도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반두라가 배포한 소책자인 '전쟁 중에 봉사하기: 전쟁도 복음의 힘을 막을 수 없다'에 따르면, 전쟁 동안에도 복음은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전파되고 성장해왔다.

김유진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평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회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며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00 (내세대에 오면 9:15)
3부예배(바자세대에)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1세대)을 섬기며, 선교를 영혼을 승려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ga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일밤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에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현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생애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5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6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7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8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9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0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1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2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3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5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6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7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8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9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0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1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2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3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5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6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7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8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29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0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1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2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3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5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6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7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8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39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40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41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42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43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4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45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46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47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48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49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50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51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52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53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5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55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56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57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58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59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60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61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62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63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6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65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66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67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68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69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70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71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72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73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7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75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76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77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78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79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80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81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82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83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8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85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86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87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88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89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90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91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92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93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9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95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96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97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98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99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00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co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삼위일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영아) 오전 10: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 3부예배(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중보기도회 오후 2:00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리디오 방송교회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리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경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러닝: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 새벽예배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요일예배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화요일기도모임 오전 10: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7:00

김상현 담임목사

한인필그림교회

2518 W. Grand Ave. Alhambra, CA 91801
T. (626)570-1610 (교회), (714)853-4030 (담임목사)

주일 오전 10:00 허튼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진건호 담임목사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턴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년.부. 초.등.부.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cs.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윤성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대홍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전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최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tla.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오렌지카운티 지역

방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O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리투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창 8: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home.org

이우호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구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구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학생단체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인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A)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지영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창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림학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박신웅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스리며 생명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명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감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박훈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6: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김종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평일전교부서) (토/주일) 새벽 6:00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주희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안창훈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LA 동부 지역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9:40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a,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미 루이지애나, '공립학교에 십계명 전시' 최초의 주 됐다



미국 아칸소주 리틀록에 위치한 아칸소주 의사당 부지에 설치된 십계명 기념비. ©위키피디아

미국 루이지애나 주가 19일(현지 시간) 제프 랜드리 주지사의 서명으로 공립 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전시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첫 번째 주가 되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하원법안 71호는 공화당의 도디 호튼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내년 1월까지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포스터 크기의 십계명 사본을 전시할 것을 요구한다. 십계명은 구약성경의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윤리 강령이다.

문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기재한다.

또한 "십계명은 유명한 대학 총장 및 교육자인 윌리엄 맥거피(William McGuffey)가 출간한 공립학교 교과서에도 포함되어 있다"며 "그의 유명한 맥커피 리더스(McGuffey Readers)의 한 버전은 1800년대 초에 작성되어, 미국 교육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교과서 중 하나로 1억 부 이상 판매되었고, 오늘날에도 사본을 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법은 법적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다. 정교분리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이 법이 미국 연방 헌법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국교금지조항(Establishment Clause of the First Amendment)을 위반한다며 소송을 예고했다.

랜드리 주지사는 19일 서명식에서 "법치를 존중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최초의 법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시물은 최소 11인치 x 14인치 크기의 포스터 또는 액자에 넣은 문서여야 한다. 십계명의 본문은 포스터 또는 액자 내에서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크고 읽기 쉬운 글꼴로 인쇄되어야 한다. 또한 전시물에는 "십계명은 약 3세기 동안 미국 공립교육의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밝히는 4단락의 배경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배경 설명은 "1688년경, 뉴잉글랜드프라이머(New England Primer)가 최초로 출간한 미국 교과서로, 초등학교 1학년용 독서 교재였다. 이 교재는 150년 이상 동안 미국 전역의 공립학교에서 미국인들에게 독서를 가르치기 위해 사용되었다. 또한 십계명에 관한 40개 이상의 질

이들은 새 법이 1980년 '스톤 대 그레이엄' (Stone v. Graham) 판결에서 제정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워렌 E. 버거 대법관이 역임할 당시 대법원은 5대 4로 켄터키주가 공립학교에 십계명을 전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반면, 지지자들은 이 법의 목적이 십계명을 "주와 국가 정부의 기초 문서 중 하나로 설명하므로, 이 문서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유진 기자

프랭클린 그래함 엡 집회, 7천명 모여... 종교자유 수호기금 출범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 있는 오보 히드로(OVO Hydro)에서 열린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의 전도 집회에 7천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영국 기독교인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기금 마련 방안도 발표됐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빌리그래함복음전도협회(BGEA)와 사마리아인의 지갑(Samaritan's Purse)을 이끌고 있는 그래함 목사는 'God Loves You' 투어를 위해 영국을 방문했다.

그래함 목사는 "어쩌면 여러분은 오늘 밤 여기에 와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싶을 수도 있다"라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구원의 사명을 띠고 오셨다"라고 했다. 그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다.

그 후 수백여명이 예수님께 삶을 헌신하기 위해 나섰다. 320개 이상의 스코틀랜드 교회는 이 행사를 앞두고 BGEA와 협력했으며, 이날 밤 헌신을 결단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제자화할 것이라고 CT는 전했다. 글래스고에 있는 빅토리 크리스천 센터(Victory Christian Center)의 알렉스 길리스 목사는 "우리 교회는 매우 빈곤한 지역에 있다"라며 "우리는 우울증, 정신 건강 문제, 재정 문제 등 모든 것을 본다. 그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전역의 사람들이다. 예수님 외에는 스코틀랜드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다.

다. 그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사람들이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희망을 준다"라고 말했다.

앞서 그래함 목사는 버밍엄에서 8천여명이 모인 집회에서 설교했다. 그는 예배 인도자인 마이클 W.스미스(Michael W. Smith)와 전 힐송 출신 타야와 함께 행사에 참석했으며, 내년 런던에서 다시 설교하기 위해 영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투어는 당초 2020년으로 계획되었지만 코로나19와 BGEA의 행사 예약을 취소한 7개 장소에 대한 법적 조치로 인해 연기되었다. 취소에 대한 법적 조치가 승소한 후 행사가 진행될 수 있었다.

BGEA는 성공적인 법적 소송을 통해 50만 파운드가 넘는 보상금을 받은 후 영국의 종교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빌리 그래함 보호 기금'의 창설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그래함 목사가 개최한 전도 행사를 홍보하는 버스 광고를 불법적으로 제거한 것에 대해 2018년에 취한 별도의 법적 조치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기금을 발표하면서 그래함 목사는 "우리는 영국에서 복음과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제 우리는 취소 문화에 맞서 이 기금을 사용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기독교인을 도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는 문제가 너무 많고 사람들은 희망을 찾고 있다. 우리는 진정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서로 지원해야 한다. 영국 전역의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자유롭게 담대하게 신앙을 실천하고 나누도록 격려하는 것이 나의 기도제목"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최연소 NBA 우승' 보스턴 셀틱스 감독 "하나님께 감사"



보스턴 셀틱스의 조 마줄라 감독이 6월 17일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열린 2024 NBA 결승전에서 승리한 후 래리 오브라이언 챔피언십 트로피를 들고 있다. ©유튜브 캡처

보스턴 셀틱스를 미국프로농구(NBA) 챔피언으로 이끈 조 마줄라(Joe Mazzulla) 감독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문구가 적힌 셔츠를 입고 우승 소감을 전하며, 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말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보스턴 셀틱스는 17일 밤 댈러스 매버릭스를 106-88로 물리치고, NBA 파이널 시리즈에서 4대 1로 승리하며 우승을 확정지었다. 이는 보스턴이 2008년 이후 처음이자 통산 18번째 우승이며, NBA 팀 중 최다 기록이다. 또한 올해 36세인 그는 역대 최연소 우승 감독으로 이름을 올렸다. 경기 직후 우승 트로피 행사에서 그는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But First... Let Me Thank God)"라고 적힌 검은색 티셔츠를 입었다.

마줄라는 프로그래머에서 그의 셔츠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셀틱스의 감독직을 "축복"이라고 설명하며 "나는 자격이 없다. 하지만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경기 후 인터뷰에서 마줄라 감독은 팀의 간판선수인 제이슨 테이텀(Jayson Tatum)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다. 믿음을 가지라"고 했다고 밝혔다.

마줄라는 "우리 모두는 힘든 일을 겪었다. 이 일을 맡을 당시 상황은 좋지 않

았지만, 우리는 정확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두셨다"며 "그저 인내심을 가지고, 당신의 시간을 쓰고, 삶에서 겪은 모든 고통과 경험들을 다음 기회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주, 마줄라는 흑인 감독들이 이끄는 두 팀이 챔피언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흑인 감독들이 직면한 역경을 고려할 때 "이것이 중요한 순간인가"를 묻는 질문에 "그중 몇 명의 감독이 기독교인인지 궁금하다"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상대 팀인 댈러스 매버릭스의 제이슨 키드 감독이 흑인과 아일랜드 혼혈인 동시에, 가톨릭 신자라는 사실을 언급했다. 두 감독 모두는 가톨릭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마줄라는 셀틱스의 감독으로 재임한 후 여러 차례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언급해 왔다. 셀틱스가 NBA 결승에 진출한 후, 그는 올해가 우승의 적기임을 강조하는 세간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곳은 바로 지금"이라고 답했다. 2022년 11월, 마줄라는 셀틱스와 마이애미 히트의 경기를 관전한 영국 왕실의 가족과 만났는지를 기자가 묻자 "예수님, 마리아, 그리고 요셉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기자가 "웨일스의 왕자와 공주"라고 설명하자, 그는 그들과 만날 기회가 없었다고 말하며 "내가 아는 왕실은 단 하나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스타워즈 새 시리즈, LGBT 이념 홍보에 시청자는 '혹평'



스트리밍 플랫폼 디즈니 플러스가 출시한 스타워즈 시리즈 '애콜라이트(The Acolyte)'의 한 장면. ©스타워즈 유튜브 캡처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된 스타워즈의 새 TV 시리즈 '애콜라이트(The Acolyte)'가 LGBT 이념을 홍보한 데 대해 시청자들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얻었지만, 비평가들로부터는 호평을 받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스타워즈: 애콜라이트'는 이달 초 출시되었으며, 충격적인 범죄 행각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제다이 마스터가 과거의 위험한 전사와 맞붙는 줄거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의 영화 비평 집계 사이트인 로튼 토마토(Rotten Tomatoes)에 따르면, 이 작품은 토마토미터에서 84%의 점수를 받으며,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99명의 평론가 중 79명은 이 작품에 "신선함(Fresh)" 평가를 남긴 반면, 20명은 "썩음(Rotten)" 평가를 내렸다. 애콜라이트는 평론가들 사이에서 10점 만점에 6.8점을 받았다.

반면, 일반 대중의 평균 관객 점수는 15%로, 이는 로튼 토마토 사용자 6명 중 1명 미만이 이 시리즈에 5점 만점에 3.5점

을 매겼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이 시리즈가 '우오크(Woke)'로 간주되는 LGBT 이념 등의 진보적 이념을 적극 반영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시리즈가 첫 방영된 날, 'Geeks + Gamers'라는 유튜브 계정은 첫 에피소드가 "포스가 무엇인지를 완전히 재정의하려고 시도한다"며 "두 (레즈비언 마녀) 어머니가 쌍둥이를 임신하는 것이 줄거리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팬은 "스타워즈에서 나올 (성별) 대명사에 대비하라"고 경고했다. 세 번째 에피소드가 방영된 다음날에 게시된 기사는 이 시리즈가 "정체성 정치에 의해 절대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고 보도했다. 웹사이트 '바운딩인투믹스'(Bounding into Comics)는 "스타워즈 세계에서 포스를 직접 조작하여 생명을 창조하는 힘은 가장 전설적인 인물들에조차 거의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다"고 언급했다. 강혜진 기자

주일에 오전 11:0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예배 오후 7:30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구경모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침례교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inlandchurch.org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가디언)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com

고태형 담임목사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광일(월-금) 06: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 06:00AM

- 3부 11:00AM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김지성 담임목사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 2부 오후 12:30 EM 오후 12:30 사랑부 오전 11:00

JCCC Academy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입니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오전 11:00 초등부 오전 11:00

종교동부(가미교회) 오전 11:00 영아부예배(만유교회)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Youth 금요일(월) 오후 7:30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유경재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전 10:30

종교동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8:00AM 주일 2부 9:30AM 주일 3부 11:15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종교동부 9:30AM/11:15AM 수요기도회 7:30PM 새벽예배 월-토 5:30AM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손창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종교대학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예수동행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ilovejccc.com

안정섭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오전 9:00 EM예배 (2부)오전 11:0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명찬 담임목사

월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금요일(월) 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200M) 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OC예배 오후 7:30 새가족 등록 오전 5:30 / 토 오전 6:00(200M)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최혁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Newhall, CA 913211
Tel. (661)219-5434 www.sammoor.org

이건창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5:30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지동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목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박성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주일 오전 11:30 주일 4부 주일 오전 11:30

종교동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3225 S Rainbow Blvd #200, Las Vegas, NV 89146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임인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리쉬)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강일진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목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침례교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이정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6985 W Sahara Ave, Las Vegas, NV 89117
T. (702) 378-9828

송삼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화-토) 새벽 5:30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6827 W Tropicana Ave #130, Las Vegas, NV 89103
T. (702) 742-3324 / thinkhappychurch.org

정공필 담임목사

주일낮예배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일교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fho@hotmail.com

조응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6: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제일침례교회

2625 Westwind Rd, Las Vegas, NV 89146
T. (702) 331-5026

이병걸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00 (영어 동시통역) 화요일예배 오전 10:00 수요 예배 오후 7:3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라스베가스 은혜와 사랑의 교회

2580 Montessori St. #107, Las Vegas, NV 89117
T. (702) 539-6348

박은호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ojeounchurch.com

임명진 담임목사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8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저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아시아미용기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비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junimedia@gmail.com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영아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찜갈비,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NATURE'S TREASURE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 기억력 개선
- 피로 회복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작용
- 혈액순환 개선

5 **비타민 D3 5,000 IU** 120 캡슐을 함유 \$8.80
D3 5000 IU 선사한 비타민 D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캡슐을 함유 \$11.99
당신의 건강과 뷰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갈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른부터 끌어올려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교회 탐방

건강하게 성장하는 브릿지 교회

LA 북쪽 사우전드옥스 지역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브릿지 교회(김재호 목사)는 101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지만, 전원교회 같은 고요함과 평안함이 가득했다.

현대식 건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교회 시설은 은혜롭고 편리하다. 찬양팀의 은혜롭고 잔잔한 찬양은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예배자로 초빙했다. 찬양인도자 박해진 전도사의 영성과 관록이 빛나는 찬양시간이다.

2부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했고 담임 목사의 설교에 집중했다. 김재호 목사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신앙을 소개하며 주님께 헌신했던 여인들의 신앙을 분반자고 도전했다. 김 목사는 탁월한 여인들의 신앙을 소개했다. 성경과 교회사에서 큰 이름을 남긴 영적 어머니들의 믿음을 소개했고, 한인 교회 여인들의 믿음을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믿음의 모습을 펼치면서 실천 가능한 신앙을 제시했다.

김 목사의 설교는 듣기 편하고

잘 들렸다. 설교 중에 성도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끊임없이 교감을 구축했다. 일방적인 외침이나 선포가 아닌 설득과 감화로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을 파고들었다.

김 목사는 연세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방송 PD 생활을 했다. 잘 나가던 직장생활을 접고 신학을 공부하고 여러 교회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했다.

에브리데이 교회 부목사로 섬기다 브릿지 교회 담임 목회를 시작했다. 20여 명도 안 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의 담임 목회를 시작하는 것은 모험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김재호 목사의 사역을 축복하셨고 귀한 성도들과 동역자들을 붙여 주셨다.

브릿지 교회는 LA 북서부지역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로 알려졌다. 최근에 마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VBS)는 다음세대



김재호 목사(브릿지교회).

를 향한 김재호 목사와 교회의 열정이 담긴 사역이었다. 지역과 다음 세대에 다리(브릿지)를 건설하는 건강한 사역이 기대되는 브릿지교회와 김재호 목사의 사역이다.

강훈 기자
교회 웹사이트: mybridgechurch.org
교회 주소: 3045 Old Conejo Rd, Newbury Park, CA 91320
주일 예배 1부 : 8:30 am, 2부 : 11:00 am, Youth & 주일학교 11:00 am



브릿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브릿지교회

아버지 밥상교회 선교편지

홈리스 형제들 50개주 홈리스 선교사로!

50개 주 홈리스 선교사로 출발
15명 형제들과 15인 승 2대로
30일 간 미 대륙 횡단 예정

수많은 홈리스들이 마약 중독과 알콜, 도박 등의 문제로 평생을 고생하며 험악한 삶을 사는 것을 많이 봅니다. 마치 강도만난 이 웃같이 거만 죽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 예수님은 저들을 돕고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밀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힘든 사역을 많이 해왔습니다. 끊임없이 섬기며,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제는 홈리스 사역이 재미 있고, LA, 빅토빌, 바스토, 라스 베가스도 확장되며 50개 주 홈리스 선교에 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성령으로 거듭나 전도사가 되고, 알콜 중독으로 도시를 헤매며 절망적 삶을 살던 형제가 50개 주 홈리스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홈리스들을 보며 불쌍하기도 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들을 보며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삶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LA에서 홈리스 사역 10년을 해 오면서 예수님 만이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체험합니다. 변화되고 은혜받은 형제들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기 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작정하는 것을 보며, 홈리스 사역의 소망을 발견합니다.

신학교를 다니며 공동생활을



무디 고 목사(맨 오른쪽)와 홈리스 사역을 통해 회복된 형제들. ©아버지밥상교회

통해 훈련받은 형제들이 이제는 50개주 홈리스 선교사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30일 동안 대륙을 횡단하는 사역이라, 여러가지로 부담도 되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교의 열정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15명 정도의 형제들이 15인승 2대의 차로 출발하며, 하나님의 강력 한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북쪽으로는 캔사스와 시카고를 지나가며 뉴욕, 버지니아, 플로리다... 우리 형제들이 홈리스를 섬기며 전도사역을 감당하며, 새로운 비전과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50개주 홈리스 영혼들을 위로하며 생명의 길로 인도

하기를 원합니다.
“너희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주님의 음성이 우리 형제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세상에서 중독과 연약함으로 절망하며 내 핍겨쳐졌던 인생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선교사로 50개주를 달려갑니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들을 협력하시고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과 교회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7/15/24 - 8/15/24 까지 선교사역이 안전하게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고 목사

김군진 칼럼

서울신대 박영식 교수 해임에 대해

2024년 6월 4일 서울신학대학교 징계 위원회가 이른바 “유신진화론”을 주장한다는 박영식 교수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결정은 이사회에 통보되고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이에 관해 한 조지신학자로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진화론은 이른바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물론 그 속에 타당한 내용도 있지만, 학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점을 가진 하나의 “학문적 이론”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진화론이 말하는 “생존 투쟁”이 생물계의 삶의 법칙이 아니라, “상부상조”와 “상생”이 그 법칙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학문의 세계에서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절대 진리”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시세계에서 세계의 사물들은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수 없는 “에너지 장” 혹은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장은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고 물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임마누엘 칸트에 따르면, 우리는 “사물 자체”(Ding an sich)를 인식할 수 없고, 단지 그것의 “나타남”(현상, Erscheinung)을 인식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타남”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감지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른바 “절대 진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화론 역시 “절대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계의 모든 것이 무(無)에서 우연히 있게 되었다는 진화론과 빅뱅이론의 전제는 증명될 수 없는 하나의 학문적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창세기 1, 2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 이른바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가 “절대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이른바 “절대 진리”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영원한 타당한 “사실”(factum)을 뜻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창조과학자들”은 창세기 1, 2장의 기록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창세기 1, 2장의 말씀들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사실들”(facta)의 영역에 속한 “자연과학적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창세기 1, 2장의 글자 하나하나가 “절대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1, 2장의 말씀들은 세계의 생성에 관한 “자연과학 교과서”가 되어버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심각한 문제점을 가집니다. 만일 창세기 1, 2장의 말씀들이 자

연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자연과학적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들에 대한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사실들”을 신앙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머리로(이성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3. 그럼 구약성서 기자들은 우리에게 “자연과학적 사실들”, 곧 그들이 알고 있는 세계 생성에 관한 “자연과학적 지식들”을 전하기 위해 창세기 1, 2장을 기록한 것일까요?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창세기 1, 2장의 말씀들은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창세기 1장에서 “하늘”은 “궁창”, 곧 물을 막아내는 튼튼한 막 혹은 천막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늘을 “물을 막아내는” 것, “물과 물을 나누는” 것으로 묘사합니다(창 1:6). 오늘날 이같은 “자연과학적 사실”, “자연과학적 지식”을 인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함께, 동시적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음에 반해, 창세기 2장에서는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고 얘기하는 모순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자를 남자 “갈빗대”로 만들었다는, 그래서 여자를 영원히 남자에게 귀속된 존재로 보는, 이같은 여성비하적 얘기를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2:4 상반절까지의 말씀들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름에 반해, 2:4 하반절부터의 말씀들은 하나님을 “야웨”라고 부르는 것도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입니다.

4. 한 마디로 창세기 1, 2장의 성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던 고대시대의 자연과학적 지식들이 아니라, 세계는 하나님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하나님의 것”이요, 세계를 있게 하신(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세계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 1장에서 2:4 상반절까지의 말씀들은 제2이사야서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신앙이 위협을 받던 바빌론 포로기에 기록된 역사적 배경이 나타난다는 것은, 양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른바 “자연과학적 지식들”은 이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 성서 기자들이 사용한 “수단들”일 뿐이지, 이른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자연과학적 사실들”, “자연과학적 지식들”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를 문서로 기록

해야 한다면, 틀림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자연과학적 지식을 통해, 우리의 언어로 이것을 기록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창세기 1, 2장의 말씀들을 “자연과학적 사실들”, “자연과학적 지식들”이라고 주장하는 “억지”를 우리는 버려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필자가 진화론을 절대 진리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5. 결론적으로 서울신대 박영식 교수가 이른바 “창조과학”을 부인하고 진화론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그를 파문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 2장의 말씀들은 “과학”이 아닙니다. “자연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서 기자들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것은 “자연과학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창조와 그의 주권과 세계 구원에 관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증언할 뿐이지,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고대인들의 자연과학적 지식을 “믿으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서가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아야지, 글자 자체를 절대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화론을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할 필요도 없고, “거짓말”이라고 부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화론은 하나의 과학적 이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만물은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확신, 신념, 이론, 윤리와 도덕도 그 속에 가설의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1+1=2를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수학자들에 의하면 수학의 모든 공식들도 가설에 입각해 있고, 바로 여기에 현대 수학의 “위대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지도자들은 “절대”라는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 안에 계시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외에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교리도,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도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의 이름으로, “교리”의 이름으로 한 신학자의 삶과 가정을 파괴하고, 한국 개신교회를 또다시 세상의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형 총장이 말하듯이, 서울신학대학이 정말 “창조론의 연구에 있어서 대학의 다양한 이론들과의 학문적 대화를 추구”한다면, 박영식 교수의 입장을 하나의 “학문적 입장”으로 인정하고 학문적 대화를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학문적 문제는 학문적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지, “교수 파면”이란 “교단 정치적 결단”으로 끝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한요 칼럼

달맞이꽃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예배 시작하기 전 예배위원들이 본당 로비에 원을 그리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예배를 안내하기에 앞서서 이미 은혜의 흥건함이 뭉클한 현장입니다. 내가 먼저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예배 시간에 맞추어 달려오는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저는 예배당 옆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가끔 예배당 로비를 향해 일부러 걸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배 안내하는 분들을 보는 것이 저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 다른 예배 안내원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향해 돌아서는 화단에 가득 만개한 꽃들입니다. 최고의 색깔로 아름답게 피어 있는 꽃들을 보며, 아름다운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예배당에 들어서기 직전 오른쪽 화단에는 키 큰 예쁜 노란 꽃이 있습니다. 가지 끝에 달린 부드러운 노란 색이 너무 예쁩니다. 저에게 노란색은 빨간색 보다 더 강렬하고, 기대하는 맘으로 가득 찬 색입니다. 그 꽃 이름이 달맞이꽃입니다. 꽃말은 ‘말 없는 사랑’ 혹은 ‘기다림’입니다. 캘리포니아의 피악벌에서 달 뜨는 서늘한 밤을 기다렸는지 밤에 꽃을 피웁니다. 밤에 덩그러니 떠 있는 달을 향해 목을 빼고 숨을 쉬느라, 키가 컸나 봅니다. 안내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추어 예배실로 향하는 우리를 맞이합니다. 어찌면 달맞이꽃은 주님을 만날 기대에 벅찬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듯 합니다.

별로 기대감도 없이 예배에 들어오는 자가 있다면, 달맞이꽃 앞에서 얼굴을 붉혀야 합니다. 예배하며 나의 매여 있는 모든 상황이 해소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우신 메신저를 통해 주실 말씀을 기대해야 합니다. 때론 칼 같이 수술해 내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때론 따뜻한 어머니의 품 같은 위로도 기대합니다. 예배의 찬양과 기도 속에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또한 기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실재적 임재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에 소망을 갖고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이 기대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만나는 날, 나의 신앙의 문이 열립니다. 나의 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걸음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사모하는 성숙함으로 자라납니다. 예배실 앞에서 우리를 맞는 달맞이꽃을 보며, 평생 주님을 향한 달맞이꽃 자세로 주님을 기대하며 살고 싶습니다.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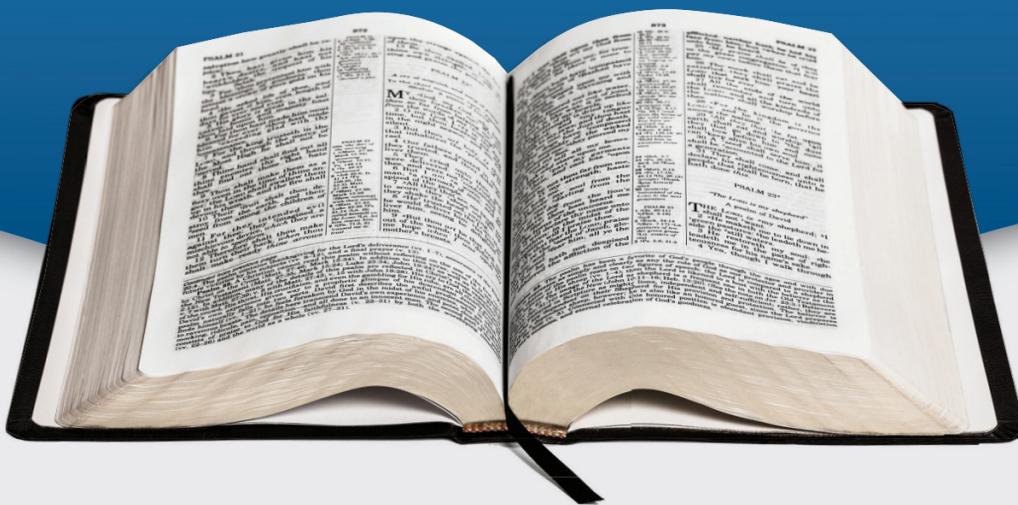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제2회 성경 필사 장학생 모집

접수기간 ▶ 2024년 6월 30일 주일까지



지난 해에 이어 제2회 성경 필사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올해 초에 5개월 간에 걸쳐 신약성경 6권을 끝마친 학생 37명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성경말씀을 필사하면서 너무도 많은 변화와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 주님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게 되고,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저마다 가슴에 와 닿은 성경구절 말씀이 다 있었습니다.

이번 제2회 성경 필사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필사하는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귀한 시간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학생들의 신청이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성경 필사 본문 (한글, 영문 선택 가능)

마태복음 ▪ 마가복음 ▪ 누가복음 ▪ 요한복음 ▪ 사도행전 ▪ 로마서

장 학 금 1인당 **\$1,000** (선정인원 30명)

응모대상 현재 재학중인 고등학생, 대학생 (나이 만14세~23세)

접수방법 QR코드 참고

장학생 선정 발표 2024년 7월 5일 개별통보

필사노트 제공 및 교육 2024년 7월 20일(토) 오전 10시

장소: 세계선교교회 (담임 김창섭 목사)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등록신청



기독교일보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민중기 칼럼

도시를 떠날 때와 머물 때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원로
KCMUSA이사장

타주로 혹은 고국으로 이사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네바다주, 텍사스주, 조지아주 등이 선호 지역입니다. 100년 동안 인구가 꾸준히 늘던 가주가 이제는 인구가 감소할 정도로 이주자가 많아졌습니다. 2020 이후, 약 73만 명의 인구가 가주를 떠났다고 합니다. 4,000만에 육박하던 인구가 줄면서, 가주는 인구가 줄어드는 18개 주에서 감소율이 4위에 속하는 상황입니다.

목회자들이야 이주하는 성도들을 간절히 축복하여 보내지만, 정든 이주자를 보면 마

음이 허전해짐을 누를 수 없습니다. 가주에서 주거와 생활비 상승은 이주를 부추기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무숙자의 증가와 치안의 약화로 인한 불안감이 또 다른 이주의 이유일 것입니다. 정치 이념의 편향과 공교육 환경의 열악함이 이주의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도시의 일반적인 강력한 흡인력을 가진 장소입니다. 출근 시간이 되면 도시의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모여듭니다. 일터는 새벽부터 일꾼을 부르고, 점심시간에는 넘치는 음식이 공급되며, 저녁에는 즐거운 오락, 문화가 있습니다. 도시에는 매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극장과 영화관, 아름다운 건축물과 박물관, 그리고 거대한 학교와 도서관, 아울러 압도적인 스타디움이 있습니다. 예술과 오락과 스포츠와 학문의 중심지가 축소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도시에 필수적인 기능을 상실한 이유로 오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신학자 메리디스 클라인(Meredith Kline)은 『하나님, 하늘 그리고 집회의 산』(God, Heaven and Har Magedon, 2006)이라

는 저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도시의 원형이 “에덴동산”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도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에 임하셨고, 주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천군 천사로 채우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하늘-성전-도시는 에덴의 이미지입니다. 죄악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하늘과 성전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도시는 분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크 엘릴의 기념비적 저서 『도시의 의미』에서는 도시가 정치, 경제, 문화뿐 아니라 영성의 중심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 이후, 도시 속에는 영성이 부패하였습니다. 오히려 최초의 도시 건축자 가인은 낫땅에 에녹성을 건설하여 자신의 힘으로 보복의 두려움을 극복하려 합니다. 인간의 능력이 드러나는 도시, 그리고 욕망의 만족과 기술문명이 발전된 도시는, 그러나 영성이 부패한 도시, 가정은 파괴되고 라멕의 살인의 노래를 부르는 세속도시가 되었습니다.

현대도시 또한 거룩한 영성을 상실한 것이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이 타락한 도시 문명을 버리지 않으시고 아들을 보내십니다. 예수께서는 “신의 도성”을 일으키려고 성육신하셨지만, 예루살렘 사람은 자기 왕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 죽입니다.

예수님은 도시를 위하여 우셨고, 성령을 보내어 “여호와 삼마” 곧 “여호와께서 거기 계심”을 이루십니다. 세속도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그 피로 자기 백성을 얻고, 에덴의 완성을 위하여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비전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도시의 개혁자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 혹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두 가지 명령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회개한 도시 니느웨와 장망성 바벨론 사이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이에서 오직 우리 모두는 마음 제단 속 성령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아야 합니다(레 6:12-13).

강태광의 신앙 명사 산책 월드쉐어 USA

감사하는 마음-김현승

마지막 가을 해변에 잠든 산비탈의 생명들보다도
눈 속에 깊이 파묻힌 대지의 씨앗들보다도
난로에서 꺼내오는 매일의 빵들보다도
언제나 변치 않는 온도를 지닌 어머니의 품안보다도
더욱 다수운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은혜의 불빛 앞에 있다.

허물어진 마을에서
불 없는 방에서
빵 없는 아침에도
가난한 과부들은
남은 것을 모아 드리었다

드리려고 드렸더니
드리기 위하여 드렸더니
더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신다.

지금 농부들이 기쁨으로 거두는 땀의 단들보다도
지금 파도를 헤치고 돌아온 저녁 항구의 배들보다도
지금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주택가의 포근한 불빛보다도
더욱 풍성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것들을 모두 잃는 날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마음만을 받으시고
그 마음과 마음을 담은 그릇들은
더 많은 금은의 그릇들을 보태어
우리에게 돌려보내신다.
그러한 빈 그릇은 하늘의 곳집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감사하는 마음 -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이 시는 <가을의 기도>로 유명한 김현승 시인의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시인은 이 시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다양하게 소개합니다. 1연은 따스한 것들을 계속 열거합니다. 그리고 가장 따스한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정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은혜의 불빛 앞에 있다.”라며 시인은 감사하는 마음이 은혜의 소산임을 고백합니다.
2연은 감사의 풍성함을 소개합니다. 감사

추방에서
맹수와 싸움에서
낯선 광야에서도
용감한 조상들은 제단을 쌓고
첫 열매를 드리었다.

는 농부가 기쁨으로 수확하는 땀의 단들보다도 지금 파도를 헤치고 돌아온 저녁 항구의 배들보다도 주택가의 집에서 새어 나오는 포근한 불빛보다 더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하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언급한 모든 것들 보다 더 풍성한 이유는 이것들을 모두 잃어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3연은 더욱 극적입니다.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노래합니다.

받지 않아도, 배부르지 않아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조건의 산물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전전후입니다. 4연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감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추방에서/ 맹수와 싸움에서/ 낯선 광야에서도/ 용감한 조상들은 제단을 쌓고/ 첫 열매를 드리었다//” 처절한 절망의 상황,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감사가 터져 나오고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경험한 것입니다. 감사의 능력입니다. 6연은 감사를 대하는 주님의 마음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마음만 받으신다고 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면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상급을 노래합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체험하며 힘차고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의 삶에서 경험한 숭한 하나님의 채우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5연은 삶의 실존에서 경험하는 감사의 능력을 소개합니다. 허물어진 마을이나 불이 없는 방이나 빵이 없는 아침은 감사거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과부가 남은 것을 모아 드렸답니다. 드릴 것이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드리려고, 드리기 위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더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7연이 이 시의 클라이맥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의 마지막 연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연을 읽는 것만으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나를 알고 주님을 아는 순간에 시간된다. 감사는 나를 알고 주님을 알게 해준다. 그러므로 감사는 거룩한 지혜입니다. 감사는 능력이고 감사는 영적 지혜입니다.



강태광 목사(WorldShare USA 대표, 시인)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귀국자동차 운송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넌감치는 사랑 감사합니다

언제나 제 곁에서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오래 건강하게 저희와 함께해주세요.

소중한 나의 부모님의 건강은 크고 튼튼한
서울 메디칼 그룹의 믿을 수 있는 최고의 한인 의료진들이
30년 이상의 노하우로 정성껏 돌봐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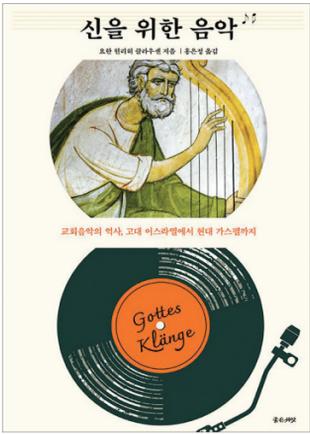
Seoul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교회는 음악을 어떻게 활용해 왔나

음악,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



신을 위한 음악

요한 헨리히 클라우센 |
홍은정 역 |
좋은씨앗 | 440쪽 | 24,000원

이 책은 고대 이스라엘의 교회 음악부터 현대의 가스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와 문화에서 발전한 기독교 음악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다양한 음악 장르와 스타일을 소개하며, 각 시대의 음악이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은 기독교 음악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이 책에서 제시해주는 각 시대별 대표 음악들을 찾아서 듣는다면 글보다 재미있는 음악을 듣는 호사를 누릴 것이라고 자랑한다

‘목사는 예배인도자’라는 말이 있다. 악기를 연주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노래를 잘 불러야 한다는 말도 아니다. 찬양대나 연주팀을 인도할 줄 모르고 심지어 악보를 볼 줄 몰라도, 이 말은 의미가 있다.

목사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 공간에 있는 교리를 가르치고 올바른 신학 위에 음악적·예전적 실천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이 있다. 신학의 분야 중 ‘역사신학’이 있다. 기독교 교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논쟁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립됐는지 연구하는 분야다. 교회에 있어 정말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음악을 통해 이뤄지고, 예배인도자로서 목사는 음악의 ‘역사신학’을 알아야 한다. 단지 현대 회중이 원하는 음악적 성향과 기호에 맞춰 예배를 구성할 수는 없다. 오래된 과거부터 지금까지 교회 음악이 어떤 논쟁을 거쳐 어떻게 정립되고 있는지 아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위한 음악, 음악으로 드리는 예배를 빛는 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 적실성과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적은 것이 현실이다.

《신을 위한 음악》은 출판사의 광고를 통해 처음으로 흥미로운 제목을 발견하고 굉장한 매력을 느낀 책이다. ‘교회 음악의 역사, 고대 이스라엘에서 현대 가스펠까지’라는 부제를 통해, 교회 음악의 역사를 살펴보고 많은 교훈과 유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졌다. 독일에서 태어나 튀빙겐, 런던 등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음악, 미술 등 문화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연구하고, 이를 쉽고 흥미롭게 글로 써내는 재주가 있는 요한 헨리히 클라우센 역시 이 책을 통하여 처음 접하게 됐다. SNS에서 이 책을 홍보하면서 “고대 이스라엘의 수금(수금)은 매춘부, 마법사의 악기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이 책이 전달하는 새로운 사실들 중 하나로 소개하는 바람에, 색안경을 끼고 책을 열었던 것이 사실이다(그

런던 다윗은 다른 악기들은 놔두고 굳이 매춘부의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인가?’라는 비판과 함께).

하지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수금이 그만큼 대중적인 악기로 널리 쓰였다는 말이지, 다른 뜻은 없다. 이 책은 고대 이스라엘 음악에 관해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과 알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설명한다. 시편의 노랫말과 초기 기독교 노래 가사가 우리에게 남겨진 유일하지만 가장 확실한 음악적 자원이다. 저자는 고대 이스라엘 음악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세 시대 그레고리 성가를 설명하며 음악적 기교나 화려함을 최대한 배제하고 가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방식이 당시 음악의 특징이었다고 말한다(음악은 가사의 시녀). 교회가 중앙집권적 구조를 가지면서 교회 음악은 성직자만 인도할 수 있고, 심지어 그들만 부를 수 있는 것이 되었다. 회중은 다만 이를 감상하고 ‘아멘’으로 응답할 뿐이었다.

하지만 종교개혁은 교회 음악도 개혁시켰고, 성직자 중심의 노래가 아니라 회중 중심의 노래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저자는 가톨릭 종교개혁과 그로 인한 교회 음악의 변화를 설명하고, 이어서 흥미롭게도 오르간의 기원과 교회 음악에서의 역할을 이야기한다. 그 이후 독자에게 아주 익숙한 바흐, 헨델, 모차르트, 멘델스존을 차례로 다루는데, 모두 유사한 클래식 음악의 장르로 여겨졌던 인물이 교회 음악과 관련하여 무엇이 다르고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게 되어 유익했다. 또 그들의 신앙이 진실했는지 생각해 볼 만한 자료를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일부러 《신을 위한 음악》이 다루는 시대, 다루는 음악 장르나 곡, 음악가의 교회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었다. 저자가 음악적 특징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듣고 싶은 욕구가 솟아났다. 특히 가스펠 음악가로 유명한 마렐리아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던 성 토마스 교회 성가대석에 있는 바흐의 묘소.

잭슨의 노래, 〈귀하신 주님, 내 손 잡아주소서〉, 필레스트리나의 〈교황 마르첼로의 미사〉 등이 음악적으로 감동을 이끌어냈다.

저자 클라우센은 신학적으로 예배 음악을 날카롭게 평가하지는 않는다. 개혁주의 신학에 맞는 주제와 가사였는지 엄격하게 따지지 않는다는 말이다(물론 유의미한 질문을 던지기는 한다).

오히려 저자는 교회가 신을 예배하기 위해 어떻게 음악이라는 도구를 활용했는지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이에 관하여 독자는 충분히 유익하고 흥미로운 지식을 이 책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사람 아담의 입에

서 노래가 흘러나오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함께 모여 부르는 찬양으로 끝을 맺는다. 그래서 음악은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과 같다.

그 음악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해 왔는지 이 책을 통해 살펴보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 음악으로 하나님을 예배할지 고민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음악은 모든 사람의 전유물로 여겨지고 있지만, 교회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때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명희 권사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이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디모데 전서 4:4



For everything God created is good, and nothing is to be rejected if it is received with thanksgiving,
1TIMOTHY 4:4

용수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202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562-903-4705

미성대 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ATS, AACS 인증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주 후 피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M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1-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 ATS, ABHE, AACS 인증
-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 수업
- 1-20 발급 및 각종 장학제도
- 학사금 지원 (Sch & Pell Grants)

- 학부 | 신학, 글로벌경영학, 가정상담학, 교육학, 중국어 신학
- 석사 | 목회학, 목회학원목회상담과정, 목회학 석사과정, 선교학, 상담심리학, 전문목회학, 중국어 신학, English M.Div.
- 박사 | 목회학, 선교학, 선교학철학, 상담심리학

입학문의: (562) 926-1023, ext. 300 www.ptsa.edu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AACS, AASCB 인증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라인과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n)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 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aarahelio@gmail.com
전화: 1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9547 EXT.# 112/admin.kor@itsla.edu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 (2)

<매드 맥스> 시리즈, 기독교적 관점으로 감상하기



<매드 맥스> 시리즈의 맥을 잇는 스피노프 신작,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

인류 문명 선하지 않음 폭로해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 대표 종말 진중한 주제의식 담아내 위기 알리고 구원 필요 이끌어

◆문명의 붕괴: 인류 문명에 대한 교만과 환상을 분쇄하는 종말론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는 성경의 창세기-출애굽기,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절묘하게 섞어 인유한 <매드 맥스> 시리즈 최신작으로, 국내 흥행 성적은 저조했으나 평단과 관객들에게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다.

종말의 상황에 놓인 인간 군상의 불안한 심리상태와 문명 회복을 위한 몸부림이 어우러진 진중한 주제의식을 전하면서, 작품성을 따지는 관객들에게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 문명 붕괴와 그 처절한 회복 노력을 상상해 봄으로써 인류 문명사 전체를 새로운 시각으로 조망하는 세계관은 서구 기독교 문화의 탁월한 강점이다.

<매드 맥스> 시리즈처럼 성경 기사를 차용해 인류의 운명을 예견해 보는 대중문화 콘텐츠들은 우리 삶의 기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되짚어볼 것을 권한다. 문명이라는 것이 태어나 보니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무수한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을 통해 건설된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라는 일깨워주는 것이다.

이로써 성경적 세계관에 영향을 받은 대중문화 콘텐츠들은 우리 존재와 삶의 '원인'과 '목표'에 대해 되짚어볼 기회를 제공한다. 세계 역사에는 인간과 만물을 초월해 있는

형이상학적 섭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렵게나마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직선적이고 연대기적인 기독교 세계관과 달리, 동양적 세계관은 전반적으로 복고적(유교)이거나 순환적(도교·불교)이다.

기독교 세계관과 마찬가지로 동양적 세계관도 나름 인류 문명의 원인과 목표를 제시하고는 있기는 하다. 다만 여기서는 대개 인류 문명 목표가 과거 특정 시점(요순 시대)으로 고정돼 있거나, 만물의 무인격적 순환에 그저 순응하는 것으로 지정되기 일쑤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인류 종말에 대한 예견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인류의 종말에 대한 성경적 예견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인간의 자기중심성과 교만을 무너뜨리기 위함이다. 과학혁명과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존속과 번영에 대한 확신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물론 새로운 세계대전의 위협과 환경과, 기후변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이를 진정 위급한 문제로 여기는 이들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인류의 대다수가 이런 문제들을 진정으로 심각하게 생각했다면, 지금처럼 문제 상황을 방치해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인류가 스스로의 힘으로 쌓아온 지식과 기술에 힘입어 자력으로 영구히 생존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인류 진보에 대한 신념은 사실상 허구에 가깝다. 이 신념을 절대 보장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현재의 인류 문명에서 찾아볼 수 없다. 우리 인류 전체의 존속을 위협할 만한 요인들은 지금도 삶의 여러 영역에서 발견된다. 물리적 영역에서는 환경 문제, 전염병, 천체의 변동 등이, 정신적 영역에서는 탐욕에 의한 분쟁과 불평등 심

화 같은 요인이 인류 문명 지속가능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종말에 대한 기독교적 전망은 이런 위태로운 현실 가운데 인류의 영화로운 앞날에 대한 우리의 교만한 신념을 분쇄하고 우리 문명이 직면한 위기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문명의 본성: 저주를 앞둔 큰 성 바벨론의 운명

인류의 종말에 대한 성경적 예견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구원에 대한 우리의 감각과 열망을 일깨우기 때문이다.

죽음과 멸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갖지 못한 채 하루하루 다가오는 일상을 그저 무감각하게 감내하고 향유할 뿐이다.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위협으로부터의 구원을 생각하지 않는 이에게 삶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하찮게 여겨질 뿐이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각과 열망이 없는 이는 삶을 올바르게 총만하게 가꾸어 나갈 의지를 상실하고, 그저 매일 권태 속에서 혹은 그 권태를 잠시 뒤쫓는 말초적 즐거움을 이어나가면서 살 뿐이다.

종말과 구원에 대한 기독교적 전망은 이렇게 무력하고 무가치한 삶의 방식을 차단하고 각자 일상을 뛰어넘는 소망과 목표를 향해 움직이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인류의 종말에 대한 기독교적 전망이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현재의 인류 문명이 과연 선하고 올바른지, 존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 보도록 우리의 사고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죄로 타락한 인류, 그 인류가 수천 년 넘는 시간에 걸쳐 이룩한 문명은 물리적 측면에서는 화려하고 치밀해 보일지 모르나, 정신적 측면에서는 늘 썩어 있었다. 무수한 혁신적 발견과 발명, 그리고

그로 인한 지식과 힘의 증가는 인류의 삶과 자유를 온전하게 보존하는 일보다는 억압, 착취, 약탈, 그리고 과시의 목적으로 활용돼 왔다. 이에 성경은 인류가 이룩한 그 어떠한 고도화된 문명도 모두 죄악과 교만으로 가득한 "큰 성 바벨론(계 18:10)"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통렬하게 지적한다.

<매드 맥스> 시리즈는 이처럼 현재 인류 문명이 결코 선하고 정의롭지 않음을 폭로하고, 그로 말미암아 종말이 다가올 때 인류가 극도로 피폐해진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기독교적 전망을 구체적으로 그려낸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 대표작이다.

<매드 맥스> 시리즈에 등장하는 여러 악역들, 토커터, 휴멍거스, 엔티티, 임모탄 조, 디멘투스의 공통점은 대표적으로 모두 폭력을 바탕으로 권력 야욕을 충족시키는 인물들이란 점이다. 이들은 현 인류 문명을 움직이는 권력구조의 근본 속성을 드러내는 인물상으로, 공의, 자비, 신실함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세속 위정자들의 추악한 본모습을 대변한다.

맥스 로카탄스키와 임페라토르 퓨리오사는 작중 이런 악독하고 불의한 권력자들에게 저항하는 영웅이자 구원자로 등장하지만, 이들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 또한 그리 선하지만은 않다.

기독교적 관점으로 볼 때 <매드 맥스> 시리즈처럼 종말에 대해 진중한 주제의식을 담아내는 작품들이 계속 제작되고 좋은 평가를 받는 상황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런 작품들은 인류가 이룩한 업적에 도취돼 문명의 불의함과 위태로움을 외면하는 이들에게, 비유로나마 종말 위기를 알리고 구원의 필요성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기 때문이다.



인류 문명이 안으로부터 썩어 붕괴한 이후의 세계를 묘사한 <매드 맥스> 시리즈



2024 SPECIAL PROMOTION

개척교회를 위한 스페셜 프로모션

개척교회의 칼라복사기 비용을 40~60% 절약할 수 있는 기회!

2024년 개척교회를 위한 칼라복사기 스페셜 프로모션이 완성되었습니다. 10년미만된 개척교회를 위한 프로모션입니다. 기존교회들은 혜택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교회가 선택한 복사기의 옵션, 모델, 사용량, 렌탈 기간에 따라서 Special discounted price가 결정되며 교회들의 렌탈가격은 모두가 다릅니다.

텍스트로 본인의 성함과 교회명을 남겨주세요. 전화드리고 간단 명료한 견적을 드리겠습니다.

213 705 7778(KOR)
TEL: 213 999 7995(ENG)
213 663 8970(ENG)
greenmwild@gmail.com

GREEN M.WILD IMAGESYSTEMS

본사는 기독교일보 공식 후원업체입니다

이스라엘서 기독교인 대상 공격 지난해 '급증'

최근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한 종교 간 평화단체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이스라엘에서 불처벌과 민족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기독교인들과 교회 재산에 대한 공격이 급증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로싱 교육대화센터'(Rosling Center for Education and Dialogue)는 이번 달에 '이스라엘 및 동예루살렘 내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

는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일부 지역사회에서 오래 전부터 존재했지만, 이제는 더 광범위하고 심각한 현상으로 확대되었다"면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증가한 불안감은 더 넓은 사회 정치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독교 공동체가 체감하는 괴롭힘의 빈도와 강도가 모두 크게 증가했다.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정치 지도부나 이스라엘 당국은 기독교를 표적으로 삼는 것

을 명시적으로 장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격 사례의 증가는 극우 성향으로의 전환, 민족주의 증가, 그리고 유대인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강조와 같은 보다 광범위한 사회 정치적 분위기와 연관되어 있다"며 "이는 성지에서의 유대교-기독교 관계의 독특한 다수

와 소수 구조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로싱센터에 따르면, 작년 이스라엘에서는 교회 재산에 대한 32건의 공격, 기독교인에 대한 7건의 폭력, 11건의 언어적 괴롭힘, 묘지 모독, 30건의 성직자 및 순례자에게 침을 뱉는 사례가 적발되었다.

보고서는 "침을 뱉는 행위는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의 종교 생활에서 알려진 현상이지만, 은밀한 행위에서 벗어나 가해자들이 대낮에, 군중 앞에서, 보안 보안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성직자, 성지, 심지어 순례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침을 뱉는 행위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침을 뱉는 행위는 이스라엘 형법 378조에 따라 중범죄 폭행에 해당하며, 인종이나 종교적 이유로 침을 뱉을 경우 처벌이 두 배로 늘어나거나, 징역 10년형 중 더 적은 쪽이 적용된다. 피해자들은 이 법을 알지 못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찰은 대부분의 신고를 비폭력적이고 무관한 것으로 일축하는 경향이 있다.

보고서는 "따라서 신앙인들, 특히 동양의 전통을 가진 신앙인 사이에는 이러한 모욕적인 행동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태도가 일반적이다"며 "침을 뱉는 낮은 사람들에게 미소

와 묵묵히 축복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침 뱉기 외에도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구타하는 등의 물리적 공격도 발생했다.

이 센터에 따르면,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아르메니아 지구(Armenian Quarter)와 전통 유대인 마을인 메아 셰아림(Mea Shearim)의 경계에 위치한 폴란드 수도원 등 유대인 거주 지역 인근의 일부 공동체들은 일년 내내 반복되는 공격을 당했다.

이스라엘 중앙통계국에 따르면, 기독교인은 이스라엘 인구의 약 1.9%에 불과하며, 그중 75.3%가 아랍 기독교인으로 이스라엘 전체 아랍 인구의 6.9%를 차지한다. 유대인은 이스라엘 인구 980만 명 중 73%이며, 초정통파 유대인은 전체 인구의 13%에 해당된다. 아랍인들은 전체 인구의 21.1%에 속한다.

로싱센터는 이스라엘에서 선교 활동은 불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이 (선교) 활동이 불법이라고 오해 받은 경우가 많지만, 유일한 제한 사항은 부모의 동의 없이 18세 미만의 사람을 전도하거나, 전도 과정에서 잠재적인 개종자에게 물질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예루살렘에 본부를 둔 로싱교육대화센터가 2023년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로싱교육대화센터

[신간] 교회가 인공지능을 우려해야 할 12가지 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 AI의 발달 속도는 빠르다. 새로운 AI 기술의 발달과 관련 제품 소식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으며 사람들은 간혹 AI를 둘러싼 일련의 기사들을 접하면서 사람이 이전보다 더 똑똑해진 것인지, AI가 스스로 진화한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저자 장보철 목사(부산 소정교회)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인공지능을 다양한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이 책을 통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저자는 책 속에서 "인류 역사에서 우리는 이러한 기계를 만든 적도, 가진 적도 없었다. 그래서 더욱 경계해야 한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교회는 어떤 시각으로 AI를 접근해야 하고, 어떤 영향을 예상할 수 있을까? 비기독교인들도 AI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기독교계와 교회는 더욱 그래야 한다. 전혀 색다른 차원의 AI는 기독교의 근간인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인간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리고 마지막 때의 심판 등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인간의 최고의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교회의 존립 자체를 뒤흔들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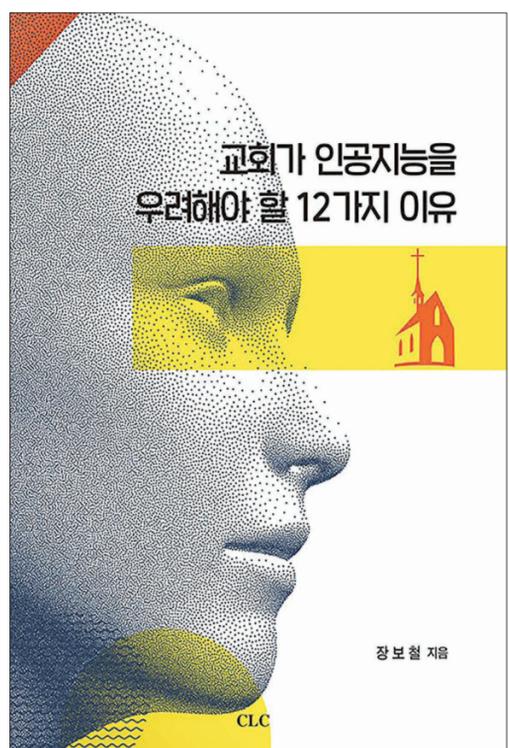
간은 신을 경배하고 제사해야만 했다. 자연과 세계를 지배하는 신은 인간이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영적이며 신비로운 존재였다. 때로 신에게 대항해 보기도 하지만, 결국 인간은 신에게 복종해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할 때 복을 주시고, 벌을 내리시고자 할 때 벌을 내리신다. 그런데, 마침내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전해 볼 만한 시대가 왔다. 도저히 넘볼 수 없던,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지던 일까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때가 온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었던 신으로부터, 기독교적으로 말하자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가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보다 하나님께서 전혀 내 곁에 계시지 않고, 나의 울부짖음을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은가?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것은 유한한 우리 인간으로서의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과 아내와 부모가 죽어갈 때, 어떻게 순순히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처럼, 인간의 능력을 훨씬 초월하여 마치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AI에 폭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달콤한 맛볼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챗GPT에만 국한해서 말해 보자. 챗GPT를 활용해서 매우 짧은 시간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필요한 설교문, 교회학교 프로그램, 찬양대 악보,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받고 있다고 가정하자. 챗GPT를 활용해서 다양한 설교문을 제공하는 데 만족하고 그것에 익숙한 목회자가 어느 날 갑자기 목회자 윤리 의식이 발동하여 설교문은 직접 준비하고 정보만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끝으로 저자는 "진정한 치료와 치유는 아픔과 고통과 절망의 삭제와 제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는 것이다. 인간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고통과 유한성과 죽음을 통해서임을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적 치유는 위에서 나온 '기



계적 치유'에 빚대어 '역설적 치유'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고통과 절망과 죽음은 진화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다"고 했다.

장요한 기자

전문작가와 함께 하는

내 인생의 자서전 쓰기

당신이 지금 여기에, 또 쉽게 돌취며 살았다는 건, 그 노동하고 한란한 삶의 흔적을 남기세요.

자서전을 통해 당신의 값진 순간은 눈부신 영원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기독일보
T.(213)739-0403, (213)434-1170
www.cowriter.co.kr
chdailya@gmail.com

기록되지 않은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Record is Memory

2024

ONE-POINT

DRAMATIC SERMON

원포인트의 드라마틱한 강해설교 세미나

“청중을 사로잡는 강해설교 작성법, 이틀간의 세미나에서 확인하세요!”

2024년 7월 29(월)~30일(화)

- 시간 : 오전 9:30~오후 4:50
- 장소 : 한길교회(담임 고광선 목사)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 문의 : 213-434-1170

- 대상 : 신학생, 목회자, 선교사 등
- 특전 : 강의안 및 점심 식사 제공

선착순 50명!

온라인 신청



신성욱 교수
현 아신대 설교학 교수

● 강사소개

- 계명대 (BA 영문과)
- 총신대 신대원 (M.Div. 목회학)
-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Th.M 구약학 수료)
- Calvin Theological Seminary (Th.M 신학약)
- University of Pretoria (Ph.D 설교학)
- 현아신대 설교학 교수
- 현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회장
- 저서 <설교의 삼중주> 등 다수

세미나 소개

1970년부터 '3대지 설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원포인트 설교'가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주제로 30분 설교를 작성하기 어려워 여전히 많은 설교자들이 3대지 설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설교학 교수인 신성욱교수는 “원포인트의 드라마틱한 강해설교” 프레임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내용과 구성법, 전달기법 등에 대한 효과적인 기술들을 배우고, 성경본문에 충실하면서도 청중의 시선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원포인트 설교작성의 방법들을 통해 새로운 설교의 지평을 열 수 있길 기대하며 남가주 지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을 초청합니다.

공동주최 : 기독교일보, 월드미션대학교